

‘이재명 독재 체제’ 굳히기인가

검찰청 폐지 등 사상 최악 정부조직 개편



이도선
주필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못된 버릇 중 하나가 조직 개편이다.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대응하고 정권의 국정 철학을 반영하려면 정부 조직을 어느 정도 바꿀 필요도 있겠지만 해도 너무 한다.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 이래저래 뜯어 고치느라 바쁘다. 생뚱맞은 부처 신설하고, 명칭 바꾸고, 부처 쪼개고 붙이고, 전 정권이 만든 부처 없애고 등등. 이런 경향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양상이다. 참고로 대통령제의 효시인 미국의 1980년대 이후 부처 신설은 재향군인부(1989)와 국토안보부(2002)가 전부다.

이재명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지난달 7일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검찰청 폐지 등이 핵심 내용이다.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4<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각각 신설할 방침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별로 없고 공산당 독재인 중국이 딱 이렇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내세우지만 실은 수사권을 휘어잡고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원천 차단하려는 속셈이다. 문재인 정권 말기에 밀어붙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민생 수사 지연과 마약 수사 위축 등을 초래했다는 지적은 곳곳으로도 안 듣는다. 수사·기소 모두 하는 특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대지 않고 검찰만 해체하는 건 ‘5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통령의 복수극’이란 불순한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파

북한·중국의 1黨 독재 판박이 국민의힘, 장외 투쟁으로 맞불

바꾸고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승격시키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권한 분산과 정책 효율성 강화 및 미래 위기 대응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정부의 변이다. 말은 그럴싸하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영 판판이다. 나라야 어찌 되든 상관없고 ‘이재명 1인 독재 체제’ 굳히기에 매몰된 느낌이다.

상적인 사법부 흔들기와 함께 “사법체계를 장악하려는 1당 독재 음모”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이유다.

방미통위도 황당하긴 매한가지다.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몰아내려고 방통위를 아예 없애고 새 조직을 만들겠다는 역할과 기능은 기존 방통위와 다를 게 없다.

<2면에 계속>

‘갈취 저널리즘’ 신고센터 개설 피해 기업 등의 피해사례 받아 고발 등 제소키로

본회는 최근 인터넷 매체 등 1인 SNS 매체가 급증하면서 소위 ‘갈취 저널리즘’이 만연되고 있다고 판단, 본회 사무국에 갈취 저널리즘에 의한 피해 사례를 접수하는 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언론 자유를 빙자한 부당한 불법·비리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언론 풍토를 조성하는데 일익을 담당키 위함입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은 본회 언론정화위원회에서 경중을 가려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가벼운 사례는 언론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입니다. 기업 등에서 갈취 저널리즘에 피해를 입은 경우 지체없이 신고센터(02-732-479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제24대 회장 후보 등록...선출총회 12월 8일

제 24대 대한언론인회 회장 후보를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등록 접수합니다. 후보 등록이 되면 심사위원들의 자격심사를 거쳐 '대한언론' 11월호에 공개합니다. 추천인이 후보 간에 중복되거나 경력, 학력이 위조된 경우 무효가 됩니다.

- 다 음 -

1.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20일(월)
2. 제출서류 : 정회원 30명 이상이 서명 날인한 추천서, 후보등록서, 이력서
3. 접수방법 :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10월 20일자 소인 유효)

삼탄 대한언론인회 회장 장석영

송년회 12월 5일(금) 오전 11시-오후 1시 30분

대한언론인회 제24대 회장을 선출하는 정기총회를 12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부터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합니다. 연말 회계결산은 현 집행부가 마무리하여 책자로 만들고 대차대조표 등은 회우들에게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송년모임은 12월 5일(금)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개최합니다.

기후부 신설은 '탈원전 정책' 되풀이

<1면에서 이어서>

사람 하나 쫓아내겠다고 법까지 만들어 밀정한 부처를 없애는 '위인폐관(爲人廢官)'은 입법 독재의 몰염치한 민낯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소추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고, 집권 후에 시도한 경찰·검찰·공수처 고발과 감사원 감사 등의 약발이 안 먹히자 '이진숙 찍어내기'의 결정판으로 방통위 폐지를 들고나왔다.

내년 8월이 임기인 이 위원장은 "법을 바뀐 사람을 찍어내는 것이 숙청이고, 민주주의 체제를 바꾸는 것이 혁명"이라고 반발하며 법정투쟁을 다짐했다. 숙청과 혁명은 지난 8월 한·미정상회담 직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상황을 표현하면서 사용해 관심을 집중시켰던 용어다.

내년부터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겠다는 구상도 반응이 별로다. 국가 재정 기획과 운용은 국무총리실 산하인 예산처가 맡고 재경부는 경제정책을 총괄한다. 예산편성권이 사실상 대통령 손아귀로 넘어간다는 얘기도. 기재부 분리는 과

거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시행됐고, 예산과 재정을 떼어내서는 경제정책 총괄이 어렵다는 게 이미 실증된 바 있다. 그동안 민생 회복 소비쿠폰 같은 과도한 재정 지출에 제동을 건 기재부에 과실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견제없이 돈을 마구 뿌리려는 꿈꿨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전화하는 등의 금융정책감독·체계 개편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돌연 취소됐다.

기후부 신설은 소득 주도 성장 정책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패작인 탈(脫)원전 정책을 되풀이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든다. 기존의 환경부 업무에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을 떼어내 출범하는 기후부는 화석 연료를 제외한 전력산업 전반을 맡고 산업부는 석유·가스·석탄 관련 업무와 함께 원전 수출만 담당한다.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같은 전력 공기업들도 산업부에서 기후부로 옮긴다. 원전 업무를 2개 부처로

쪼갠 것은 '탈원전 시즌 2' 선포나 다름없다. 규제 위주인 기후부가 원전 건설과 기술 투자를 소홀히 해 원전 생태계가 또다시 위축되는 건 시간문제이고 원전 수출의 앞날도 보나마나다.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는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원전 확대에 나선 세계적 추세를 거스르고 AI를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탄소 중립'을 강조하는 에너지정책이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로 이어져 전기·가스요금 올리고 국가 경제에 큰 부담을 안기는 건 정해진 수순이다.

정부 조직 개편이 이대로 이뤄지면 '이재명 독재호(號)'는 그야말로 순풍에 돛 단 격이고 머잖아 북한과 중국 판박이가 된다. 이처럼 문제 많은 정책이 야당과의 협의없이 여권의 일방 독주로 추진되도록 묵과해선 안 된다. 야당은 "정부 조직 파괴안"이라고 맹공을 퍼부으며 반대해 보지만 현격한 의석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속절없이 밀리는 모양새다.

지난달 25일 정부조직법과 방통위 개편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무제한

마무리씨 권영섭



토론(필리버스터)으로 맞섰으나 민주당의 '24시간 후 표결 → 강제 종결' 전략에 말려 별무소득이었다. '조국 사태' 이후 6년 만에 대구와 서울에서 지난달 21일과 27일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장외 투쟁에 나섰으나 여권은 막무가내다.

그렇다고 나라 망하는 꼴을 그냥 지켜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열을 가다듬고 투쟁 강도를 한층 더 높여 대한민국이 북한·중국식 독재 국가로 가는 것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의 반대는 물론이고 필리버스터 등의 투쟁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 세미나와 기자회견, 신문 기고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나라의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고, 필요하다면 '태극기부대'를 비롯한 우파 세력 전체와의 연대도 적극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한민국은 풍전등화다. 나라와 후손들이 살고 죽느냐가 지금의 결단에 달려 있다. 깨어 있는 시민이 일어날 때다. ☐

‘내란몰이’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내란’과 ‘특검’ 쌍끌이로 보수 궤멸 시도



이규진
총괄부회장

드디어 ‘내란몰이’가 호랑이 등에 올라탔다. 고삐는 ‘추다르크’라고 불리는 추미애 손에 쥐어져 있다. 이제부터 광풍을 일으키며 달리는 호랑이를 세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추미애 법사위원장 구도가 그려지면서 조마조마했는데 ‘역시나’였다. 추미애 위원장의 통찰력과 추진력은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드루킹 사건’의 단초를 제공하면서 그 진면목을 보여주지 않았던가? 결국 ‘대법원장 청문회’라는 기상천외한 자충수가 튀어나왔다.

국민의힘을 비롯해 보수세력 궤멸을 위해 온 천지에 유혈을 낭자하게 뿌리며 진행되고 있는 ‘특검소동’의 소용돌이 속에서 위헌적인 ‘내란특별재판부’라는 악수가 튀어나와 ‘내란몰이’가 비등점을 향해 치달았는데 그 칼끝이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까지 향했다. 이유인즉 대법원이 지난 5월1일 이재명 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한 것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대통령 후보(당시 이재명 민주당후보)를 바꾸려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내란몰이’에 연결해 중요한 아이টে으로 삼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4인 회동설까지 꺼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집요하게 몰고 늘어지고 있다. 4인 회동설은 3류 유튜버가 조작해 퍼뜨린 가짜 뉴스(당사자가 인정)였는데 서영교 등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사실인 것처럼 왜곡 폭로했다.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에 세울겠다는 아이디어는 참으로 황당하고 위험하다. 그 사례가 헌정사상 전무후무 할뿐 아니라 누가봐도 사법권을 흔들고 장악하려는 의도가 뻔하기 때문이다. 사법부를 장악한다?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 정권은 입법·행정·사법의 3권을 장악하게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독재권력이다. 선출 독재! 기시감이



내란몰이 최선봉에 서 있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2일 회의장에서 회의진행에 항의하는 나경원 의원과 이른바 ‘추나전쟁’을 벌이고 있다.

있다. 1930년대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에서 당시 독일 국민의 선택으로 출현한 히틀러의 나치스트가 바로 그거다. 사법부 장악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이다. 베네수엘라의 독재자 차베스가 1999년 대법관 수를 늘리고 우리처럼 여당이 절대 다수인 의회에서 대법관을 선출하는 반민주적 법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해 1인 독재체제를

진행되고 있는가”라고 되뇌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백이 그냥 나온게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이 제일 위에 있고, 다음이 선출권력, 임명권력은 그 다음이다”라고 권력서열론을 천명했을 때 그 속내를 알 수 있었다.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은 법대에서 민주주의의 핵

이라는 단어로 세뇌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데 말이다. 진짜 내란이 일어났었나? 작년 12월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보는 모양인데 그 때 군인을 국회 안으로 투입시킨 것은 백번 잘못된 것이었다. 윤석열의 무지였고 권력남용이었다. 한마디로 위법이었다. 그러나 내란(內亂)이라고 할 수 있나? 무슨 내란이 총 한방 안 쏘고,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 한 명 없고,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했다고 헌법 절차에 따라 계엄권자가 계엄을 해제하는가? ‘내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세력이 외치고 있는 “내란, 내란!”은 ‘진짜 내란’(內亂)이 아니고 정치용 프로파간다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내란’이라는 프레임에다 모든 정치 이슈를 수렴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바로 ‘이재명 사법리스크’ 완전 해소와 장기 집권이다. 이는 합법적

3권장악 폭주 멈추고 안보와 민생 돌볼 때

완성했다. “미국 민주주의”의 저자 알렉시 토크빌이 설파한 “무한한 권력은 그 자체로 나쁘고 위험한 것이다”라고 한 말이 떠오른다.

청문회를 열어봤자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 뻔한데 추미애는 왜 이를 밀어붙이려고 했을까? 그 대답은 민주당 의원들 입에서 나왔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 의원은 “(국회를 무시하고 불출석하면) 탄핵 마일리지 차곡차곡 쌓여간다”고 말했다. 바로 탄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치우고 제거한다. ‘사법리스크’가 정권 몰락의 방아쇠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이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권성동 의원과 나경원 의원, 그리고 내란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지귀연 판사의 앞날을 유심히 지켜보라. “한국에서 숙청(purge)과 혁명(revolution)이

심인 ‘삼권분립’에 대해 어떻게 강의 들었고 공부했는지 궁금하다. 민주주의 고전(古典)이라 불리는 몽테스키에의 “법의 정신”은 읽어 보았는지 모르겠다. 지난 4월4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파면시킨 문형배 변호사(당시 헌법재판소장 대행)조차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대통령에게 “한번 대한민국 헌법을 잘 읽어 보시라”고 권유 아닌 충고를 했겠는가.

이재명 정권은 현재 ‘내란몰이’와 ‘특검소동’이라는 쌍끌이 전략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연일 “내란세력 청산”을 부르짖으며 정적(政敵) 제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내란우두머리’ ‘내란수괴’ ‘내란국무회의’ ‘내란정당’ ‘내란동조자’ ‘내란국회의원’ ‘내란연론’ ‘내란세력’ 등등 용어 앞에 ‘내란’이라는 단어를 무작위로 붙여 ‘내란’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다. 민주당 국회의원 입에서 내란이라는 단어가 안 튀어나오는 날이 거의 없을 정도다. 국민들을 ‘내란’

독재체제를 구축해야 가능하다. 벌써부터 ‘내란몰이’가 내년 6월의 지방선거, 어쩌면 다음 총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까닭이다.

민주당 정권은 ‘내란몰이’와 ‘특검소동’ 뿐만 아니라 검찰 해체를 위한 법안,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3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더 센 특검법,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등등 ‘개혁입법’이라는 명분 아래 전광석화(電光石火)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다. “한꺼번에 물을 건너야지 따로따로 건너면 물려 죽을 수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교시를 따르는 느낌이 짙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에는 강약이 있고 완급이 있는 법이다. 급발진 하거나 폭주하면 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이재명 정권은 이쯤해서 노자(老子)의 경구(警句)를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멈추어야 할 때 멈출 줄 알아야 위태로움을 비껴갈 수 있다” (知止不殆) ㉞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보수의 새희망’

민주당 일방 독재 정치 견제...최전선에 섰다



김 화
본회 이사 · 편집위원
전 경향신문 편집위원

지금 한국 제1야당 국민의힘은 어느 때보다 투쟁력을 갖춘 강한 리더십의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다. 때를 맞춰 당 대표로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지난 8월 전당대회서 선출됐다. 여의도에 입성한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정치 신인인 그는 세상을 깨고 역전의 정치드라마를 연출하고 별을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은 탄핵되고 내란혐의로 감옥에 갇혀있다. 금년 4월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후 “세상이 바뀌어도 너무 바뀌었다”는 세간의 말이 실감날 정도로 민주당 정부는 ‘내란청산’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3개의 특검도 양에 차지 않는지 검찰을 완전 분해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면서 ‘보수의 종자’까지 말려버리겠다고 버르고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고 이전 사법부까지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정하려 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 정권하에서 해체의 공포를 느끼고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위축되어 투쟁력은 잠자고 내부총질에 여념이 없는 콩가루 집안의 밑바닥까지 추락했다. 이 절체절명 위기상황의 와중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오로지 보수의 미래와 국민의힘 재건을 위해 ‘비상계엄은 비판해도 대통령 탄핵만은 막아야 한다’는 정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발탁됐으나 좌고우면하지 않고 한동훈과 절연한 후 지금까지 소신을 굽히지 않고 달리는 기관차처럼 달려왔다.

장동혁은 당 대표 선거기간 중 정곡을 찌른 정치언어로 사자후를 토하면서 그동안 축적했던 동물적 투쟁력의 야성을 폭발시켰다. 이 열정에 사기가 떨어져 주눅이 든 국민의힘 당원들의 얼어붙은 가슴을 열어 약세의 전세를 뒤집고 당대표로 당선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인물을 키우지 않고 대통령 선거 때마다 용병을 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달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 정치 국민규탄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9.21<대구=연합뉴스 제공>

을 지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과 충남도당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으며 재선했다. 재선 후 수석최고위원으로 정치적 위상이 올랐고 금년 6월까지 ‘사기탄핵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아 당의 입장을 주도했다.

장 대표는 이처럼 행정부·사법부·입법부를 두루거친 풍부한 경험에다 자생력·투쟁력·적응력·유연성·정책능력을 보태 국민들의 국민의힘 지도자 갈증을 일시에 해결했다. 장 대표는 시대정신을 재빨리 파악하고 투쟁의 결기와 협치의 유연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그는 “이재명을 대통령에서 끌어내리겠다”고 강경발언을 했지만, 대통령의 여야영수회담 제의에 응해서 협치의 유연성을 보여줬다. 또 당직 인선에서 핵심보직인 정책위원회 의장에 중립적인 김도읍 의원을

투쟁·적응력·유연성으로 강한 리더십 갖춰 행정·사법·입법부 경험 바탕 당 요직 맡아

보로 내세웠다. 용병이 대통령이 되면서 당내 분란이 잦은 것도 여기에 원인이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서라도 당내뿐만 아니라 중도층 국민들의 기대도 크다. 그렇다고 장 대표 앞길에 붉은 카펫만 깔려있는 것은 아니다. 본인의 역량과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당장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선방하지 못한다면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여건은 결코 녹록지 않다. 벌써부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들과의 대화’를 명목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드러나지 않게 민주당 후보자를 거론하여 사전포석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에는 힘겹고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에게 국민들이 큰 정치가로 성장할 기대를 거는 이유는 그가 살아온 인생 역정, 다양한 경력과 그 과정에서 축적된 능력, 구태정치에 물들지 않은 참신한 정치적 성향 때문이다. 장 대표는 56세로 충남 보령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집은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해 대천고를 나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불어교육과에 입학했다. 육사와 경찰대 진학을 고민하다가 사범대에 가면 가정교사를 하며 대학에 다닐 수 있다는 선생님의 권고로 서울대 사범대학을 택했다. 4학년 재학 중인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 교육부 행정사무관으로 근무하다 공군장교로 입대, 중위로 제대한 후 2001년 제43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2004년 사법연수원 33기 수료 후 200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명된 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국회 파견근무하고, 2020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재직 중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했다.

2020년 4월 제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소속으로 대전 유성 갑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22년 6월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으로 결원이 된 보령시·서천군 국회의원 보선에서 당선돼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으로 활약하다 사무총장

임명, 당내 소통과 단합을 꾀했다.

그러나 여야영수회담의 착잔 온기가 식기도 전에 민주당 정권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특별재판부 설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촉구, 대법관 증원으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국회에선 전례없는 법사위원회 야당 간사를 투표로 부결시키는 등 수적 힘으로 3권 분립과 법치라는 민주주의 근간을 파기하는 것을 보고 다시 투쟁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지금 장 대표 입장에서 다른 길이 없다. 민주당의 폭정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국민에게 직접 호소하는 것이다. 지난 9월12일 국회의사당과 용산 대통령실 앞의 ‘독재 타도’ 집회로 장외투쟁의 예포를 울렸다. 이어서 대구집회를 시발로 서울까지 이어간다.

장 대표의 ‘독재타도’ ‘민주회복’ 투쟁이 ‘의식 공핍증’과 ‘인식 마비증’에 걸린 국민들의 마음을 연다면 그는 막강한 대통령 후보로 떠오를 것이다. ☞

“이재명 정부는 전과 22범 범죄자 주권정부”

국보법·막말 등 국회의원 40% 전과자



서옥식
본회 부회장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

이재명 내각 초대 장관들은 반미종북 언행 등 국가보안법위반, 갑질, 표절, 막말·음모론 등 명예훼손, 음주운전,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차명보유, 쪼개기 매입, 과태료·세금 연쇄체납, 폭력행위, 집시법 위반 등 최악의 부적격자들로 가득차 있다. 마치 범죄자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내각은 전과 22범 범죄자 주권정부로도 불린다. 여기에 전과 3범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전과 5범(김일성주체사상 선전·주한미대사관저 화염병 습격 등)의 정청래 당대표 등 국가보안법 위반자 20명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과자 68명(2025년 9월 현재 전체 170명의 40%)까지 합치면 국조(國祖) 단군이후 5000년사(史)에 이런 범죄정부와 범죄정당은 일찍이 없었다.

민주당이 지난 9월 18일 국민의힘 불참하에 검찰청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도 검찰청을 없애 자신들의 범법행위를 감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왜냐하면 검찰청 폐지가 가장 ‘이득’을 볼 사람은 범법자들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위반·음주운전·검사사칭·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4범의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8천억원대에 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와 성남FC후원금 불법수수, 위증교사, 선거법위반, 법인카드 불법사용 등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윤석열 정부에서 보복과 탄압받았다고 주장하나 범죄혐의를 보면 정치범이 아닌 잡범·파렴치범 수준이다. 그의 범죄는 거리가 돈과 거짓말과 관련돼 있다. 김민석 총리도 국가보안법위반(주한 미문화원 점거) 등 전과 4범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전교조 출신 교사·교육감을 지내면서 북한을 17회나 방문한 친북반미

주의자로 면허취소 수준 만취상태 음주운전에 석사논문 표절, 그리고 성적이 좋지않게 나왔다고 울고있는 여중생 제자 따귀까지 때린 폭력 등 전과 3범이다. 조국과 윤미향을 옹호하고,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아닌 이스라엘 잠수정 때문이라는 음모론을 퍼뜨렸고,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일을 ‘탕탕절’이라는 글을 올리며, 김재규의 박정희 대통령 저격을 옹호했다. 그는 또 2016년 병신년(丙申年) 민노총·전교조 주도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촉구 촛불집회에 참석한 뒤 SNS에 “잘가라 병신년”이라는 글을 남겨 비속어 논란을 일으켰다.



표 출신의 한 장관은 이재명 초대 내각 각료 중 최고액인 182억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네이버 주식 매수 청

차관 퇴직 후 취업 제한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3년간 8곳에 사외이사 등으로 겹치기 근무하며 6억 20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의혹을 사고 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7년간 5차례나 종합소득세 납부 시한을 넘겨 연체하는 등 종합소득세, 재산세 등 세금과 과태료 체납으로 차량 등 재산이 15차례나 압류된 적이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억원·주병기와 최고진 등 3인을 ‘범죄의 달인 삼형제’라며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최근 차관급인 새만금개발청장에 임명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의겸은 윤석열 대통령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 제조·선동가로, 2024년 12월 가짜뉴스 뿌리뽑기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가짜뉴스 시상식에서 이재명(1위)에 이어 3위에 선정됐다. 2위는 김민석, 4위는 정청래, 5위는 최민희가 각각 차지했다. 2023년 시상식에서는 김의겸이 단연 1위였다.

‘검찰청 폐지’ 날치기 통과로 범법행위 은폐 최교진 사회부총리 등 각료들 친북좌파 일색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북한의 지령을 받는 대표적인 반미종북좌파 조직인 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폭력·교통방해·명예훼손·불법과업 등 12개 혐의 전과 5범이다. 청문회에서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견해에 동조했고, 과거 김정일 조문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선거법 위반만 5차례에다 국회사무총장 시절에는 스스로를 훈장 수훈자로 추천한 ‘셀프 보훈자’로 이름나 있다.

안구백 국방부 장관은 방위병 복무 기록 논란, 영창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 하지만 병적기록과 징계 내역은 ‘개인정보’라며 제출을 거부했다. 국회 국방위원장 시절엔 한·미·일 연합 훈련 일정을 SNS에 공개해 ‘보안체계 무력화’ 우려를 샀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몰수형을 선고받았다. 네이버 대

구권(스톡옵션) 254억4000여 만원, 성과조건부주식(RSU) 행사금액 4억 3000여 만원까지 포함한다면 재산액은 440억원을 넘어서 거액 신고누락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인 친북주의자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농지매입 과정의 위장전입과 함께 배우자가 취득한 전국 6곳의 태양광 발전소 중 두 아들과 공동 소유한 1곳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병역 대체 복무 의혹이 제기돼 있다. 그는 2003년 9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삼성탈레스(현 한화시스템) 등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 경영학 석사(MBA), 스탠퍼드대 대학원 과정 등을 마쳐 제대로 대체 복무를 했느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기획재정부

부적격자로 낙마한 경우까지 치면 이 대통령의 인사는 참담하기 그지 없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 딸 조기유학 논란 등이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했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보좌관 갑질 논란 끝에 자진 사퇴했다. 또 오광수 민정수석은 차명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 등이 제기돼 물러났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자기에게 충성했던 직원들을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으로 채용하고 자신의 여러 범죄사건을 변호했던 변호사 5명을 무더기로 특정지역 국회의원 공천을 쥐 당선되게 하는 한편 외교 경력이 전혀 없는 자신의 사법연수원 동기생이자 선거법위반 변호사인 차지훈씨를 복핵을 포함한 우리의 ‘분단외교’ 현장 총책임자 미·중·일·러 대사와 함께 장관급인 유엔대사에 임명함으로써 빈축을 사고 있다.☞

‘병주고 약’ 美 트럼프 행정부 눈살

경제 포커스

대규모 투자한 한국기업 근로자 무차별 구금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 배터리 합작 공장에서 체포된 한국 근로자 316명이 우리 정부가 급파한 전세기를 타고 귀국했다. 미국의 요청을 받아 대규모 투자를 했는데도 불법 비자 등을 문제삼아 억류된 지 7일만이다. 배터리 공장은 현대차그룹이 76억 달러(약 10조원)를 투자해 건설 중인 전기차 생산 복합단지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CMA)’에 위치해 있다. 현대차와 LG엔솔이 합작 투자한 배터리 공장은 내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었으나 이번 사태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전세기가 미국 땅을 이륙한 그날,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은 ‘유연함’은 없다”는 선언과 함께 감춰뒀던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귀국’이라는 해결 장면을 연출하자마자 새로운 짐을 한국에 안겨준 것이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병 주고 약 준 셈이다.

3500억 달러 투자 연계한 15% 상호 관세 합의해 놓고 ‘서명’은 유보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관세에 대해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 냈다.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원)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25%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다. 그러나 미국이 투자 패키지 구성과 투자 방식, 이익 배분 문제 등을 놓고 일방적 요구를 하면서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상태다. 한국은 펀드 투자의 대부분을 양국이 합의한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출이나 보증 한도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자신들이 프로젝트를 선정하면 한국이 현금으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이 투자한 3500억 달러를 인프라와 에너지 프로젝트 등 자국(미국)이 원하는 곳에 투자하고,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한 뒤에는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등 한국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실상의 ‘백지수표’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합의 내용을 수용하지 않으면 상호관세를 원래대로 25%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압박의 주인공이다. 그는 CNBC 방송에 출연,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한다”며 “유연함은 없다”고 거듭 협박성 발언을 했다. 그의 발언 맥락으로 볼 때 미국은 근로자 인도와 위협을 병행하면서 한국을 협상



美國 이민당국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한국인 등 근로자 체포 당시 모습.

테이블에 단단히 묶어두려는 고도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중간선거 전략으로 한국인 등 외국인 근로자 구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인 등 근로자 구금사태와 관련한 핵심정책은 크게 두 가지다. 미국 제조업의 재건과 불법 이민자 추방이 그것이다. 제조업 재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당국의 무분별한 급습 여파가 한국에서 계속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꼬집었다.

WSJ은 이어 “기업들 입장에서 미국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할 수 없겠다”고 말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 내용을 전했다. CNN방송도 “현대차 공장 압수수색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자 6

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의 이 같은 강경 기조에는 최근 한국인 근로자 체포로 확대된 국내 비판 여론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어쨌든 정체된 관세 협상을 다시 성사시키기 위해 최근 미국에 급파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핵심 쟁점을 풀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한 만큼 정부도 책임을 면하긴 어렵다.

이번 사태는 무엇보다 비자 문제에서 비롯됐다. 미국이 불법 비자로 자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비자 발급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불법’ 타령만 하고 있는 모양새다. 미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했거나 투자하는 한국 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최근 1년 새 36%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투자기업 비자(E2), 일반 주재원 비자(L1), 전문직 비자(H1B) 등 3개 섹터 감소율을 평균한 값이다. 일반 비자 발급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협력사들은 H1B 프로그램에 의존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하늘의 별따기’일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업계에서는 미국의 대

美 언론, 근로자 구금 비판 “동맹국 한국에 뺨 때려” 비자 문제가 구금사태 핵심 국가별 쿼터 조정을

확보하고, 불법 이민자 단속을 통해 그들이 뺨어간 일자리를 미국인들에게 돌려준다는 양면 전략이다. 외국의 돈과 기술은 원하지만 외국인은 원하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순된 대외정책은 자국 내 ‘정치화’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은 내년 11월3일 중간 선거를 치른다. 상·하원과 주지사 일부를 다시 뽑는 선거다. 결국 이번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구금은 불법 취업 단속을 빙자한 ‘표연기 전략’의 일부로 볼 수 있다.

미국의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한국인 등 근로자 대거 구금사태와 관련, 일제히 비판적 견해를 나타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사설을 통해 “향후 미국이 더 많은 외국인들의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시비자가 필요하다”며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에 대한 미국 이민

위 교역국인 한국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CNN은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을 고려하고 있는 모든 기업에 충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호 관세에 관련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못 박은 만큼 우리 정부는 난기류에 빠진 협상의 장기전도 각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거센 압박에 맞서 협의를 서두를 생각이 없다”며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과격하고 불합리하며 비상식적이다”고 이례적으로 미국의 협상방식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도 이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하려는 듯 최근 언론 공지를 통해 “합리성·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규모 한국인 근로자 구금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비자의 국가별 쿼터(할당량)조정 등 제도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무협)는 최근 내용은 ‘대미 투자 확대 속 인력 조달 문제 심화와 한국인 전문직 비자 법안’ 보고서에서 “미국 내 생산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 엔지니어 파견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각 기업은 합법적 비자 발급의 구조적 한계와 쿼터 제한으로 인력 이동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렇듯 우리 근로자들에 있어 미국 비자 발급 문제는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미국 비자 쿼터 확대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조희곤(본지 편집위원·전 내외경제 논설위원)

대한연론 특별기획 근현대사 실록 33

‘한강의 기적’은 이승만이 시작하였다

건국대통령 이승만은 호국대통령, 교육대통령으로 평가받지만 정작 ‘경제 대통령’이었음을 아는 국민은 드물다. 국내학계는 그동안 50년대 경제를 ‘미국 원조로 겨우 먹고 살던 극빈시대’로 단정, 연구대상에서조차 제외하였으며, 좌익의 ‘이승만 지우기’ 역사왜곡과 맞물려 이승만시대의 경제발전 자료들이 아

예 매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50년대 언론이 보도한 내용만 훑어봐도 한국경제의 고도성장과 산업화가 사실은 이승만 시대부터 활발하게 일어났음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게 된다.



34) 경제대통령

◆1948년 8월15일 건국 직후 ‘산업부흥5개년계획’ ‘물동5개년계획’ ‘농업증산3개년계획’ 등을 추진했던 이승만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들은 공산군의 6.25침략으로 일단 물거품이 되었다.

휴전을 결사반대하면서 평생 목표 ‘한일동맹’부터 체결하여 ‘안보 철벽’을 구축한 이승만은 미국의 대규모 원조를 끌어들이고, 부흥부(復興部)를 설치하여 ‘전후복구-경제부흥’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양면작전을 펼침으로써 국가경제 재건 시기를 단축시키려 총력전을 벌인다.

그 결과 경제성장률이 1957년 8.7%, 1958년 7.9%로서 60년대 박정희 정권의 개발시대를 연상시킬만한 것이었다. 기업체도 급증하여 국민총생산이 54년과 55년 45.7%와 66.7%로 폭발하고, 국민소득 증가율은 1954년 9.5%, 1955년 5.6%, 1956년 0.6%(최악의 흉년), 1957년 9.4%, 1958년 6.6%, 1959년 5.6%라는 고속 성장을 이어간다.

이와같이 1958년 무렵이면 전전(戰前) 수준을 훌쩍 넘어섰고 본격적인 경제 개발단계로 올라서게 되었다고 평가했는데, 이런 평가는 4.19후 집권한 장면 정권이 그해 가을 유엔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이었다. 또한 최근 50년대 경제를 연구한 김두열 교수(명지대) 등이 이승만 정권의 경제성장 및 산업화 속도가 “70년대 못지않았다”고 결론짓고, 논문과 저서로써 발표한 바 있다. (김두열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2017)

◆이승만은 “10년내로 자립경제 이루자”며 수입대체 추진과 수출진흥 정책을 동시에 밀어붙였다. 그동안 학계는 이승만의 경제정책을 ‘수입대체’로만 보고 ‘수출진흥’은 그 결과가 박정희때보다 미약했다는 이유로 묵살해 왔다. 실상을 보면, 박정희가 실시한 각종 수출보양 정책들은 그 원조가 이승만 대통령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1956년=‘수출5개년계획’ 확정 발



▲1957년 9월26일 문경시멘트 공장 준공식에서 점화봉을 들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왼쪽)과 송인상 부흥부장관 및 김일환 상공부장관(매일신문DB).

1958년 1월20일 인천판유리 공장이 처음 생산한 유리를 경무대에 보내 이승만 대통령이 감개어린 표정으로 보고 있다.(대한뉴스 제147호. K-TV화면 캡처).

표. 농산물과 중석 등 광물, 김 등 해산물 증산.

*1957년 1월=‘무역진흥법’ 개정, 수출불 링크제 등 각종 인센티브 실시. 수출자금 금융지원.

*1957년 7월=교통 및 물류 인프라 확대. 부산항만 확장, 경부고속도로 건설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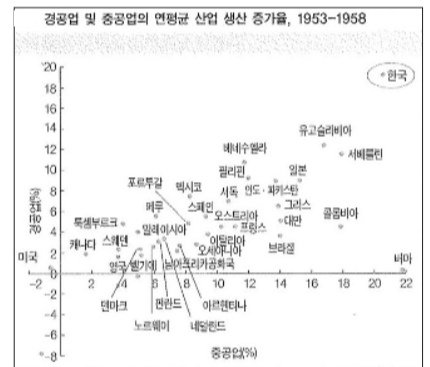
*1958년 3월=해외시장 개척 외교적 지원. 주요수출국과 무역협정 체결.

*1958년 5월=수출장려금 지급, 세금 인센티브 확대. 조세 특례조치 입법.

*1960년 1월=수출 5개년 계획 완료 평가. 새해 당면목표 발표. *소득세 법인세 면제, *원료에 대한 물품세 반려, *영업세-교육세 면제, *수

출입은행 설립, 수출보험 실시. *해외 세일즈맨 양성, *수출진흥공사 설립, 해외 한국관 운영, 외국기업의 투자 유치, ◆이승만은 미국 원조가 소비재위주임을 비판, 일본시장 중심의 구매강요에 “이런 원조 안 받겠다”고 미국과 싸우면서 원조자금을 생산공장 건설에 투입하였다. 자금증대를 위해 ‘환율전쟁’을 벌이며 단돈 100달러도 직접 결재한 그는 인력 양성을 위한 해외유학생 파견엔 아낌없이 달러를

썼다. 전후복구가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한 1958년 3월 ‘산업개발위원회’를 발족시킨 이승만은 ‘경제개발3개년계획’을 마련, 1960년 집행에 들어간다. 그러나 4.19로 중단된 개발계획은 장면 정권이 흥내내다가 몰락하고, 1년 만에 박정희가 이어받는다. ◆박정희보다 60년 앞선 ‘수출입국’=한마디로 이승만은 ‘준비된 경제대통령’이었다. 20대 청년시절 한성감옥에서 농자(農者) 대신 ‘상자천하지대본’(商者天下之大本) 이론을 발표하고 옥중 명저 [독립정신](1904)에서 농경사회 구한말에 ‘자유통상 무역입국론’을 선창한다. 그때 이미 이승만은 박정희보다 60여년 앞서 ‘수출입국’을 부르짖은 글로벌 자유시장경제의 선구자요, 자본주의 신봉자였던



▲이승만 집권기 휴전후 1953~1958년 5년간 세계 각국의 경공업-중공업 산업 생산 증가율. 유엔 자료.(김두열 [한국경제사의 재해석] p119). 한국은 선진국들보다 월등한 20%선에 육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오른쪽 맨위 원내).

성장 최고 8.7%...전후 복구·경제부흥 함께 이룩 수출 5개년 계획 총력...경부고속도로 건설 계획

것이다. 건국직후 농지개혁을 서둘러 농민 해방을 단행, 경제자유권을 가진 ‘국민’으로 통합시켰으며, 일본이 남긴 적산(敵産) 약 23억달러(당시 평가, 북한엔 29억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각종 기업과 재산을, 국회의 ‘국유화’ 요구를 물리치고 민간에게 모두 불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다. 전쟁 중에 ‘은행법’부터 제정하여 한국은행 외에 산업은행을 설립한 이승만은 비료·시멘트·판유리 등 3대

산업의 건설을 비롯하여 6·25로 박살난 발전·배전시설과 탄광의 보수-증강과 산업철도 건설을 중점지원한다. 일찌감치 수출 5개년계획을 밀어붙이며 ‘수출입은행’과 ‘수출진흥공사’까지 만들어 세계시장을 개척해나갔던 이승만대통령! 국제외교와 국제무역을 아울러 추진한 정경(政經)일체의 글로벌 파ioni어, 70년뒤 ‘선진국의 신화’를 이룩할 토대를 쌓아놓은 역사적 민족지도자였던 것이다. ㉞

인보길(전 조선일보 편집국장·현 뉴데일리 회장)

“좌고우면은 없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행정부 ‘내란 전담 재판부’ 참여는 위헌



전의식
본회 편집위원 · 전 서울신문 부국장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3대 내란 특검이 수사 중인 사건을 내란 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법안을 새로 발의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 115명은 7월에도 내란, 김건희, 채상병 등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의 재판을 맡을 내란특별전담부 설치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가 범조계와 학계에서 위헌 논란이 일어나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내놓은 것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새 법안은 3대 특검 재판을 각각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 3개씩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6개의 재판부 구성은 대법원의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판사들을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후보 추천위원은 법무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협이 4명씩 총 9명으로 구성하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7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국회, 판사회의, 변협이 각 3명씩 9명이었으나 입법부의 사법부 판사 추천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나오자, 재판부 구성의 내용을 약간 바꾼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3대특검대응위 전현희 위원장은 “국회 추천을 배제하고 추천위를 구성하게 됐으니 위헌 논란은 사라질 것”이라고 부언했지만, 야권 및 범조계와 학계에서는 입법부 대신 행정부가 내란 전담재판부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라 위헌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 법안이 오는 연말 안에 정기 국회에서 통과하면 3개 특검이 기소한 재판을 담당할 1심과 2심 재판부를 설치하여, 재판부당 3명씩 총 18명의 판사가 임명되고 영장 전담 법관 3명도 별도로 대법원장이 임명하게 된다. 현재 법원의 각 재판부 구성은 불공정 논란을 피하려고 무작위 추첨으로 담당 판사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법무부, 대한변협 등 다른 조직이 특별재판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위헌 논란은 제쳐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이 지난 7월 27일 국회 기자회견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고라도 우선 사법부 권위와 위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우리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로 규정하고, 제2항은 “법원은 최고 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사법권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전속

비상 상황이라 특별법에 속한 특별재판소가 일시적으로 설치되었으나 맡겨진 임무를 마친 후에는 모두 폐지되었다.

나머지 한번은 5.16 후 군사정부에 의해 태어난 군사혁명재판소였는데, 헌법에 존재하는 군사재판과는 관계 없는 정적 숙청, 부정축재자 처벌, 반

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 “개헌없이 이런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그리고는 “내란 재판으로 처벌을 정확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시비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가 힘이 세다고 마구잡이로 공격한다면 당의 권력 행사 절제의 자세와도 맞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주도했던 문형배 전 소장 권한대행은 자신의 페이스 글을 통해 “이러바 내란전담재판부 문제는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현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아마도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뜻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여의도와 서초동 주변에선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정기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되어도 새 재판부가 작동하기까지의 과정

개헌없이 내란전담 재판부설치는 위험한 발상 내년 지방선거의식 민주당의 조급증·불안감

되며, 법원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단일한 체계로 구성됨을 의미하며 또 101조 3항에선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법과 서울고법에 내란재판부를 따로 설치할 수는 있겠지만, 재판관 구성이 일반 재판부와 달리 특별한 권한이나 다른 절차를 거친다면 위헌 논란이 일어날 소지가 충분히 보인다는 것이 다수 법학자의 의견이라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의 세 차례 있었다. 광복 후인 1948년,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처벌을 위해 헌법 부칙 근거 규정에 따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었고 4·19 혁명 후엔 개정 헌법 부칙에 의거, 부정선거와 반민주행위자, 부정 축재자 처벌을 위한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 제정된 바 있다.

두 번은 모두 민중이 기존 체계를 무너뜨린 혁명적 시기에서 생겨난 일이었다. 일제와 독재 정부 붕괴라는

혁명 혐의자 단죄 등 정치적 목적으로 만들어진 불법적 재판기관으로 헌정사에 기록되고 있다.

이번에 내란 사건 특검이 수사하는 사건을 재판할 전담재판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을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것을 두고 정치권 주변에선 내년 치러질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조급증과 불안감 때문이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서부지법이 내란 혐의로 구속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지법에서 구속 기소 취소 결정을 내린 전력을 돌아보면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고, 재판부의 심리도 의도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도 등장했다. 민주당의 김병주 최고위원이 “지금의 내란 재판은 운동장에서 침대 축구를 하고 있다. 마치 고속도로를 시속 20km로 지나는 것처럼 정체되고 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처럼 보인다.

하지만 여권 인사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의견을 갖고 있지는 않은 느낌이다. 판사 출신 민주당 박희승 의원

은 힘난할 것으로 내다본다. 법관추천위에 입법부 대신 행정부인 법무부가 들어서는 것이라 위헌 논란은 여전한 것이고 법원에서 관습처럼 시행하는 사건 배당의 무작위 원칙이 사라지는 문제도 계속 불씨로 남을 것이라 지적이다.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권한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낼 수도 있고 전담재판부 구성에 반발하는 내란 피고인이 헌법 소원을 현재에 제출하면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중단될 경우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민주당이 26년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를 의식하고 신속한 재판을 서두르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도 크다. 이런 법적 다툼이 아니더라도 재판부가 바뀌면 새로운 재판부가 전 재판부의 방대한 기록을 파악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당연히 늦어지는 것이니 여권의 기대처럼 빠르게 진전할지는 앞으로 두고 볼 일이다. ☞

자유민주주의 건국이념 짓밟는 '386힙포'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무엇을 꿈꾸는가



박석흥
본지 논설위원장
전 문화일보 국장

취임 100일 이재명대통령 기자회견은 당당했다. <12·3 내란 청산>을 역설하고 “대법원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이라 하던데, 그게 무슨 위헌인가”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다음이 직접 선출 권력, 그리고 간접 선출 권력 순서”라고 설정하고 “정치로부터 간접적으로 권한을 받은 사법이 전도돼, 대한민국은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동아대 교수)은 “대통령과 국회가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갖지만, 그 권한도 헌법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며 “현행 헌법으로는 입법부가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허영 이호선 이인호 차진아 헌법학자들도 이대통령 주장에 강하게 반론을 제기 했다. 차진아 고려대 교수는 “선출 권력이 우위에 있고, 국회 다수 의석으로 뭉든지 법률로 정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12·3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을 숨가쁘게 달려온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위증 교사 사건> 등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이재명 사법연수원 동기법조인, 전 노총 대표, 전 교조 대표를 대통령실과 정부요처에 발탁하고 취임100일 기자회견에서 자신 있게 강경발언을 했지만, 야당·학계·시민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 증인·참고인 신청을 거부해서, 청문회를 무력화 시켰다”며 “더불어 민주당이 원내 제2당이 말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 강탈·야당 간사 선임 부결·야당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송언



전대법 법원행정처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2<연합뉴스 제공>

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칼날이 ‘국민의힘’을 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재명 집권 100일이 “혼용무도(昏庸無道)-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

힌 박희승 의원도 “특별재판부 재판을 재판 구성자체를 위헌으로 판정하면 누가 책임지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기념

재판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침해하는 장본인”이라고 조 대법원장을 비난했다. 대법원장 사퇴 논란은 대통령실까지 번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법원장 비판논의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브리핑했다가 과장이 커지자 재차 브리핑을 열어 “(브리핑의) 취지를 오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영교의원은 유튜브를 근거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국회에서 제기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주장은 점입가경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사법부개혁 논란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을 한 번 읽어보라”고 했다. 문형배 전 대행은 “사법부는 입법·행정부 견제를 위해 헌법에 따라 만든 기관”이라고 전제하고 사법 개혁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무리한 변혁은 ‘법에 의한 통치(rule by law)’일지는 모르지만

전국법원장회의 “민주당 사법개혁 독주 반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력·탄핵 ‘점입가경’

게 만든-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로 얼룩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 배신이자 권력의 전락이었다”고 힐난했다.

내란·김건희·해병 3 특검은 120일 수사 일정이 남아 있는데, 9월 4일 ‘더선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의결했다. 특검 수사를 절반도 안했는데 수사기간을 각각 30일 늘렸고, 120명 파견검사를 50명 더 증원했다. 내란특검만 검사 60명을 채웠을 뿐, 김건희·해병 특검은 정원 40·20명도 못 채웠는데 10·30·10명씩 더 증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현행 헌법에 허용 조항이 없는 위헌이라고 헌법학자들은 지적했다. 대법원도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서를 발표했다. 사건 배당은 법원의 고유 권한인데, 국회나 대한변협이 특정 사건을 전담할 법관 구성에 관여하면 사법부 독립이 침해될 수 있다고 걱정했다. 더불어 민주당의 판사 출신

사이에 국회의 사법제도 개선논의 과정의 일탈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재판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9월 12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도 “사법제도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법부는 사법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며 집권당의 사법개혁 독주를 우려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개헌 없이 내란특별재판부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더불어 민주당의 사법개혁과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이유 있는 반론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과 퇴진을 들고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하냐, 대통령 위에 있느냐, 대법원장은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고 공언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내란

‘법의 통치(rule of law)’는 아니라고 법학자들은 지적하고 트럼프가 “한국에서 숙청이나 혁명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는 질문이 나온 원인은 검증할만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2025년 9월4일 조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을 불법 체류 혐의로 포승에 묶어 호송한 영상 한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2017년 11월 8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한민국을 격려하고 동맹을 강조했던 트럼프의 9월4일 가혹한 한국제재를 이재명정부는 반추해야 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혈맹이지만 닉슨독트린의 배신을 경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지난달 22일 나왔다. 이재명대통령의 왜곡된 대미 발언을 정리해서 한·미관계 정상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

특파원 수첩 런던 ⑥

도재승 서기관, 레바논서 출근길 피랍

한국 첫 외교관 납치사건...이슬람 무장단체 소행



박창래
전 동아일보 런던특파원
전 문화일보 편집국장
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대표이사

영화 '비공식 작전'은 우리나라 외교관 납치사건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한 편의 논픽션 기록이다. 하정우와 주지훈 주연에 김태성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화는 2023년 8월 개봉 후 재난과 액션, 스릴과 서스펜스, 유머를 녹여낸 재미로 대박을 쳤다. 베이루트 현장 로케가 여의치 않아 비슷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모로코에서 촬영, 현장감이 돋보이고 박진감이 넘쳐 긴장감과 몰입도가 단연 압권이다.

1986년 1월 31일 베이루트의 수도 레바논 주재 한국 대사관의 2등 서기관 도재승(都在承)은 여느 때처럼 푸조 305 승용차를 타고 대사관으로 출근하고 있었다. 아침 8시 10분, 그가 대사관 앞에 도착하기 직전 갑자기 연녹색 벤츠 승용차가 도재승의 차 앞을 가로막았다. 이와 동시에 검은 색 복면을 쓰고 소련제 기관단총 2정과 권총 2정으로 각각 무장한 괴한 4명이 벤츠에서 내리더니 운전대를 잡은 신입 행정관은 그대로 둔 채, 푸조 안에 있던 도 서기관을 강제로 끌어내려 포박한 뒤 자기들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가두었다. 그들은 대사관 차의 키를 빼앗고 오른쪽 앞바퀴에 기관총을 난사,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대사관 입구까지 20여m를 앞두고 좌회전을 시도하려는 순간 길 양쪽에 기다리고 있던 괴한들이 순식간에 벌인 납치극이다. 차를 몰고 온 김규영 행정관(31)은 대사관에서 4 Km 떨어진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만 신변 안전을 위해 근처에 사는 도 서기관과 출퇴근을 함께 하고 있었다.

서 베이루트 람레트 엘비다에 위치한 대사관 앞 지중해 연안 '화이트 샌드' 해안은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파도의 포말 위를 찬란하게 비추어 평화롭고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모래밭에서는 몇몇 현지인들이 전쟁에는 아랑곳없이 아침 산책을 즐기고 있



었다. 서울 법대 출신의 도 서기관(44)은 1973년 외무부에 들어가 호놀룰루와 자메이카 서기관을 거쳐 85년 9월부터 현지에 파견된 중견 외교관. 부임 4개월 만에 변을 당한 그는 얼마나 놀랐을까. 그리고 그것은 함께 살던 부인과 각각 초, 중학생의 2남 1녀에게는 무려 638일 간에 걸친 악몽의 시작이었다.

해방이후 처음 발생한 외교관의 납치에 온 국민은 경악했다. 급전을 접한 외무부는 한우석 제1차관보를 반장으로 한 비상대책반을 구성하고 백방으로 도서기관의 행방과 구출 방

1986년 1월 베이루트서...638일간 행방 몰라

2023년 영화 '비공식 작전' 모티브...구출과정 그려

안을 논의하고 레바논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는 한편, 이원경 외무부 장관은 연일 불철주야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등 우방국가에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협조해줄 것을 요청, 다각적인 외교활동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위 외교관 납치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생사는 물론 누가 무슨 이유로 어디로 끌고갔는지조차 알 수 없는 미궁 속에서 무려 1년 9개월, 21개월에 걸친 지루하고 긴박한 탐색과 협상이 시작되었다. 문자 그대로 암중모색이었다. 오리무중 속 실제 상황은 영화보다도 훨씬 긴장감이나 서스펜스가 넘친다.

서울 본사로부터 다급한 전화로 현지 취재 지시를 받은 나는 급히 베이루트로 가는 비행기 편을 알아보니 런던 발 직행은 전무해 파리를 거쳐

가장 빠른 편으로 베이루트로 향했다. 파리에서 1박한 호텔이 뒤에 알고 보니 김형욱 정보부장이 실종(?)되기 전에 투숙했던 숙소여서 어쩐지 불길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런던 주재 특파원이었지만 유럽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굶직한 사건은 거의 나의 뒷, 유럽과 중동 일대를 커버하는 국제적 사회부 기자였다.

폐허로 변한 '中東의 파리'

호텔도 모래주머니 쌓인 요새화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레바논은 평화롭기 그지 없었다. 코발트빛 지중해에 다사로운 햇빛이 반사하고 해안

한창인 구(舊)시가지 옆에 있는 세인트 조지 호텔은 베이루트의 과거와 현재를 웅변적으로 상징한다. 그리스 선박왕 아리스토텔레스 오나시스가 세계적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와 함께 지중해를 바라보면서 당시로서는 최대인 20만명의 유조선 구매계약을 맺었던 이 호텔은 지금은 뼈대만 드러난 채 모래주머니와 총포로 요새화 되어있다. 그 호화 호텔이 우여곡절 끝에 2025년 봄에 어렵사리 재건축을 마치고 관광객을 받기 시작했다는 최근 소식은 나를 기쁘게 해준다.

극도의 긴장 속 갑자기 등장한 한 장의 사진

요트를 즐기던 이곳 지중해변의 휴리데이 인 호텔이나 페니시아 등 모든 호텔과 별장도 요새화되기는 마찬가지. 건물의 폐허화는 물론이거니와 도로·통신·수도 등 각종 하부구조의 파괴는 이 나라의 모든 기능을 거의 정지시켜 놓고 있다. 전기가 안 들어오는 일은 비밀비재. 전화는 통화되기를 바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냥 찾아가는 것이 나올 정도이다. 이곳 취재를 하면서 가장 애를 먹은 것이 바로

을 따라 뻗어나간 길 양쪽에 자라나는 팜 추리는 최고기온 섭씨 35℃, 최저 10℃의 기온과 함께 휴양지로서의 요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누가 베이루트를 '아랍의 심장'이요, '중동의 파리'라고 하지 않았던가? 한때는 '아랍 금융의 중심'이지 않았던가. 세계의 셀럽들이 연인과 함께 휴가를 즐기고 굶직한 상거래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러나 땅에서 보는 베이루트는 바로 혼돈과 무질서 뿐 '카오스' 그 자체이다. 그 해까지 장장 11년에 걸친 내전으로 모든 것은 파괴된 채 방치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도 싸움은 공방전을 계속, 그 옛날의 평화와 아름다움을 언제 다시 되찾을 수 있을는지 장래는 암담할 뿐이다.

베이루트 북쪽 해안, 지금 전투가

이 통신의 어려움이었다. 서울로의 국제전화는 포기하는 것이 낫고 호텔에서 불과 2~3km 떨어진 우리 대사관으로의 통화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을 정도였다. 전쟁으로 케이블이 모두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기사를 바로 서울 본사로 보낼 길이 없어 런던에 있는 아내에게 어렵사리 전화로 불러주면 아내가 이를 받아 팩스로 본사에 송고할 정도.

도재승의 행방이나 범인의 소속 단체, 납치 동기 등 아무 소식도 없이, 날이 지날수록 정적 속 숨 막히는 긴장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던 순간, 한 가지 단서가 나타났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나타난 그것은 피랍 사흘 뒤 등장한 한 장의 사진이었다. 대사관의 긴장은 한결 증폭되었다.☞

기업육성 정책... '성장'과 '분배' 동시 실현

대한연론 특별기획

박정희 경제기적 재조명 ③



좌승희 박사

아주대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표 1〉은 민주·시장경제의 성숙도와 경제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저자의 연구에서 인용한 것인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성숙 될수록, 저성장·분배의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소득 증가율과 기업의 성장률은 민주·시장경제가 성숙 될수록 낮아지고 있다. 한편 민주·시장경제가 성숙 될수록 소득 재분배는 강화되고 당연히 가처분소득 지니는 낮아지지만, 역으로 시장소득 지니는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계량 경제학적 분석에 의하면 민주·시장경제 체제가 성숙 될수록 재분배복지가 강화되고 기업의 복지 재원 부담과 기업규제가 증가하면서 기업 성장이 둔화된다. 이에 따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일자리가 축소된다. 나아가 재분배복지가 강화될수록 국민의 태업(怠業, sabotage)이 만연된다. 결국 재분배복지 강화와 기업 성장둔화로 경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wa, S. H. . What causes polarized stagnation, corporate economy, or welfare state?: Insights from new development economics. Economics & Politics, 1 - 33, 2024. <https://doi.org/10.1111/ecpo.123167> 참조]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놀랍게도 박정희시대, 즉 한국의 개발연대는 성장과 분배개선이 동시에 실현되는 한강의 기적을 실현하였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1980년대 말 정치민주화와 함께 선진국의 균형성장과 복지국가 이념을 추구한 이후 한국경제는 개발연대의 동반 성장에서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는 선진국병을 30여년 동안 앓아 왔지만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림 1〉에 의하면 1960~80년대까지의 개발연대는 연평균 8~9%의 소득 성장과 지속적 시장소득분배개선을 실현했지만, 87년 정치 민주화 이후에는 지난 30여년간 10년마다 평균 2%포

인트씩의 소득 성장둔화와 동시에 지속적인 시장소득분배의 악화를 경험해 왔다.

필자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성장둔화와 분배악화의 원인이, 앞의 세계 민주·시장경제에 대한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바로 민주주의의 성숙과 함께 수반되는 복지국가 이념의 강화에 따른 기업 성장의 둔화와 재분배정책의 강화 때문임이 확인되었다. 평

구분	GDP 증가율(%)	기업 성장률(%)	시장소득 지니(%) (a)	가처분소득 지니(%) (b)	재분배 강도(a/b)
비민주 시장경제(12국)	10.11	14.19	44.81	40.84	1.12
후진 민주 시장경제 (20국)	8.25	13.06	49.02	42.52	1.21
중진 민주 시장경제 (14국)	7.22	9.71	46.41	34.00	1.34
선진 민주 시장경제(OECD 창립회원국)(23국)	3.79	7.73	47.68	28.77	1.58

표 1. 세계 민주·시장경제 체제의 경제성과

등한 경제를 위한 기업에 대한 성장규제와 재분배 재원 확충을 위한 높은 세율이 기업 성장을 둔화시키고, 재분배 복지제도가 보편화되면서 국민의 태업이 발생하여 경제 성장과 분배가 동반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의 경우 민주화 이후 기업성장률의 급락과 함께 성장과 분배가 동시에 악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좌승희 외, “한국경제 저성장·분배악화의 원인과 대책”, 한국경제포럼 제18권, 제1호, 55-103, 2025. DOI : 10.22841/kefdoi.2025.18.1.003 참조]

이상의 분석 결과는 현재의 세계 경제와 한국경제의 저성장·양극화 현상은 역설적으로 복지국가 이념을 위해 평등하고 균형된 경제를 추구하는 “평등 민주주의” 때문임을 강력히 시사한다.



포항제철 준공식(1973.7.3)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과 박태준 사장(뒤쪽 왼쪽) ©정부기록사진집

당 소득이 1만 달러 정도는 되어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로버트 달(Robert Dahl)같은 정치학자들의 주장처럼, 이 결과는 권위주의 정치가 경제 도약의 전제조건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산업혁명이 모두 권위주의적 혹은 비민주주의적 정치하에서 가능하였다는 사실과 최근에

기업 성장이 경제 성장-분배 개선 기여

어떤 정치가 경제발전의 친화적인가?

이러한 발견은 민주·시장경제 체제 선택이 저절로 경제발전을 가져오리라는 믿음이 순진한 생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단순히 민주·시장경제 채택 여부나 나아가 정부의 산업 정책적 개입이나 대기업경제력 집중 여부 등 부분적 혹은 단선적 시각으로 복잡한 경제발전의 성과 여부를 평가할 수 없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동안 박정희의 경제 기적이 정치적 독재와 재벌 중심의 경제 불균형을 초래해서 잘못됐다는 국내외 주장이 심각한 오류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자원 동원을 위한 강한 중앙집권적 정부가 필요하다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런 애스모글루(Acemoglu) 등 일부 정치경제학자들의 주장이나 1인

는 체제 전환경제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의 성장전략에 무임 승차한 공산독재 하의 중국만이 도약에 성공하고 있음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한편 위의 분석 결과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과 함께 분배개선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류 시장 중심 경제학이나 기업을 부정하는 사회주의 경제학의 근본 사상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새로운 발견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업육성 노력을 폄훼하고 반대기업적 시장 중심적 이념과 재분배복지에 경도된 주류경제학계의 반박정희 시각도 심각히 실사구시에서 벗어난 현실 왜곡일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기업을 불평등의 원천이라 보는 반박정희 좌파 사상은 더욱 심각한 오류임이 분명해 보인다. 박정희의 기업육성이 박정희 동반 성장의 기관차 같은 역할을 했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창간 146년 아사히신문 전통 중시 부러워”

대한언론인회 국제교류단의 일원으로 일본의 오사카와 교토를 9월 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 간 다녀왔습니다. 이 여행엔 장석영 회장을 비롯 신문과 방송 출신 전직 언론인 회원 15명이 함께 했습니다.

일행은 제1의 목적지인 오사카의 만국박람회장 관람을 비롯 아사히(朝日)신문 오사카 본사 예방, 교토의 도시사(同志社) 대학 구내의 정지용 운동주 시비 헌화, 고려미술관 방문, 금각사(金閣寺) 관광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만국박람회는 ‘우리 삶을 위한 미래 사회의 디자인(Designing Future Society for Our Lives)’을 주제로 지난 4월 13일 개막해 10월 13일까지 열리는데, 이미 9월 2일 현재 전 세계에서 2,00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려, 손익분기점인 1,800만 명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폐막이 가까울수록 관람객이 줄어드는 것과는 반대로 오사카 만박은 폐막을 한 달 남짓 남겨 두었으나 관람객은 더 늘고 있다고 했습니다. 누적 관람객 200만 명을 넘겼다는 한국관 앞에는 일행이 찾아간 2일 오전부터 100m 넘게 줄이 서 있어 2시간을 기다려야 입장이 가능할만큼 높은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한국관의 전시 개념은 ‘연결(Connection)’로 20분 길이의 3개의 공연물이 공연 중이었습니다. 이 공연의 모티브를 한산 모시의 모시 짜기에서 찾아냈다는 것은 필자에게 특별한 감동이었습니다. 모시의 씨줄과 날줄의 교직(交織)을 인간과 인간의 얽힘의 상징으로 본 것입니다.

제1 전시관을 가득 메운 100명의 관람객들은 씨줄과 날줄을 상징하는 여러 개 레이저 광선이 현란하게 교차하는 한 가운데에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과 옆 사람이 서로 연결된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관람객들은 입장할 때 자신의 목소리로 입력된 자신의 소망이 AI의 음성믹스 기술을 이용해 공연 중에 흘러나오는 것도 체험하게 됩니다.

제2 전시관에선 인간과 자연의 연결 관계를 수소 연료를 매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객이 전시장에 설치된 파이프에 숨을 불어넣으면 그 숨이 위로 올라가 수소엔진에 의해 수소 방울로 변해 땅위의 식물에 내려앉는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자신의 숨이 수소 방울이 되어 떨어질 때 저마다 이를 잡으려고 손을 내젓는 관객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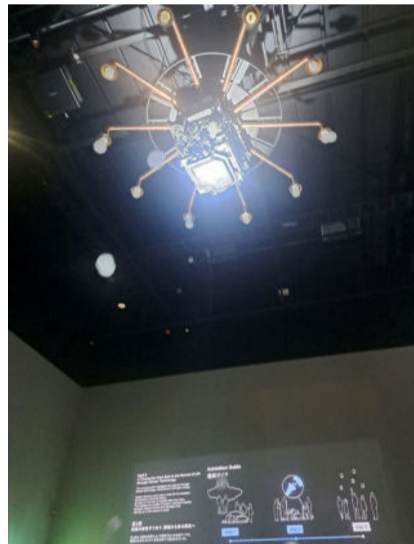


장석영 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아사히신문 오사카본사에서 다츠자와 마사유키 편집국장에게 방문 기념패를 전달하고 있다.(촬영·나가노 기자)

소연료의 세계적 강자인 현대자동차가 이 전시물의 제작에 기여했다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제3 전시관은 인간과 영혼의 연결 관계를 영상화했습니다. 영상에서 2040년 한국의 한 여고생이 2025년에 죽은 작곡가인 할아버지가 미완으로 남긴 악보를 완성하는 과정을 K-팝, 댄스 등 한국의 문화콘텐츠로 버무려냈습니다.

한국관의 전시는 이처럼 관람객이 동참하는 형식으로 인간과 인간, 인간과 자연, 현재와 미래의 어우러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관의 홍보 매니저인 박송희 씨는 “다른 나라 전시물이 문자로 된 시각물 위주인 것과 달리 한국의 전시물은 관객 참여형



오사카 만박 한국관 제2 전시실 천장의 수소엔진에서 관람객이 입으로 불어넣은 입김이 수소방울이 되어 땅위의 식물로 떨어지고 있다.

만국박람회 한국관 ‘인기몰이’

영상물의 독창성으로 인해 세계의 남녀노소로부터 고무 인기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필자 개인으로는 모시가 고향인 충남 서천의 특산품으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인고를 떠오르게 하는 물건이라는 점에서 감회가 특별했습니다. 모시는 모시 실을 이빨로 가늘게 쪼개는 ‘짜기’로 이빨에 골이 패어서 이골이 났고, 실을 연결하는 ‘삼기’로 참이 마르고 무릎이 닳았으며, 베틀에 얹어 ‘철거덕 철거덕’ 짜느라 허리가 굽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폭 31cm, 길이 21.5m의 하얀 천이 모시 한 필이었습니다.

그런 한(恨)의 제품으로만 알았던 한산 모시가 오사카 만국박람회에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전시물로 재탄생했다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모시에서 연결의 모티브를 찾아낸 한국인의 창의성이 K-문화의 원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사카 도착 당일 찾아간 아사히신문 오사카 본사 방문은 언론인 출신의 일행에게 각별한 의미를 지닌 일정이었습니다. 창간 146년 된 일본에서 영향력이 가장 큰 이 신문의 운영상황은 세계 신문산업의 미래에 대한 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사카 시 중심부인 북구 나카노시마에 위치한 바닥면적이 1,000평쯤 되는 37층 빌딩의 본사 건물은 웅장했습니다. 이 건물의 1층에서 13층까지는 신문사가 쓰고 나머지는 임대를 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2011년부터 14년까지 서울 특파원을 지낸 사회부의 나가노 아키라 기자가 일행을 맞았습니다. 일행은 편집국으로 안내되어 다츠자와 마사유키 편집국장의 안내로 편집국 일반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이시야이 쓰도무 편집위원, 타나카 유이치로 논설부주간이 동석한 가운데 회의실에서 간담회가 열렸습

대한언론인회
日오사카·교토 탐방기



정지용의 향수를 부르는 임종건 회우

니다. 일행의 책상 위에는 당일 (9월 1일) 조간신문, 한일 정상회담 다음날 (8월 24일) 신문, 이시야이 편집위원이 6월에 쓴 조선통신사에 관한 기획연재 기사, 나가노 기자가 6월에 쓴 일본 국민가수 가토 토키토 씨의 제주도 방문 동행기 등 간담 자료가 놓였습니다.

아사히 측의 치밀하고 정중한 영접 준비에 감탄하면서 질의응답에 들어갔습니다. 발행 부수가 얼마인가는 일행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다츠자와 편집국장은 330만 부쯤이라고 밝혔습니다. 1980년대 필자가 한국일보 외신부 기자였을 때 아사히 900만 부는 요미우리 1,000만 부와 함께 우리에게 경이와 부러움의 수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쇄매체의 발행부수가 날로 하강 추세인 가운데 일본 신문이 비교적 선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으나, 아사히만 해도 전성기의 3분의 1로 떨어졌으니 경영상의 타격이 짐작되면서, 그 무렵 100~150만 부라며 호기를 부리던 한국 신문들의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젊은 층의 구독 외면이 심각하지 않냐는 물음에 다츠자와 국장은 대학생의 50%가 아사히의 존재를 모른다는 여론조사 결과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가짜 뉴스 대처방법에 대해선 뉴스는 거짓말과의 싸움이라며 큰 거짓말일수록 더욱 집요하게 팩트체크를 한다고 했습니다.

인터넷 시대에 신문 호의를 읽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한국 신문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호의를 일본은 여전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13면에 계속〉

“윤동주,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대한연론인회
日오사카·교토 탐방기

일본 교토 도시샤 대학 윤동주·정지용 詩碑 헌화

일본 교토의 도시샤(同志社)도 대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인 세분의 모교가 된다. 공초 오상순 시인은 1914년부터 1917년까지 철학과를 다니다가 중퇴했다. 정지용 시인은 1923년에서 1929년에 걸쳐 예과와 본과를 다니고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윤동주 시인은 1942년에 입학했으나 1943년에 일경에 체포돼 학업을 중단했다.

윤동주는 도쿄의 릿쿄 대학을 다녔다. 그러면서 도호쿠 제국대학에 전학원을 넣고 방학을 맞아 연변 집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도쿄에 머물고 있던 지인으로부터 도호쿠 대학에서 전학이 받아들여졌으니 와서 수속을 밟으라는 연락을 받는다. 도쿄에 가보니 잘못된 연락이었다.

윤동주는 릿쿄대로 돌아가지 않고 교토로 가서 도시샤 대학으로 전학한다. 왜 도시샤일까? 그것은 윤동주가 사숙하던 정지용 시인의 모교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학과도 정지용과 같은 영문과로 갔다. 아들이 도쿄 도호쿠 제대가 아닌 교토 도시샤 대학을 가자 아버지(윤영석)는 무척 섭섭해 했다고 한다.

윤동주는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에 시 19편을 정리해서 연희전문은 사인 이양하 교수께 보여드렸다. 그



윤동주 시비앞에서 서시를 읽는 유자호 회우.

시집은 손으로 직접 쓴 것인데, 표지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써어 있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제목이 없이 실려 있는 시가 오늘날 ‘서시’라고 불리는 작품이다.

윤동주는 시집 출판을 원했으나 “내지 않는 게 좋겠다”는 스승의 권유에 따라 출판을 포기한다. 아마도 당시 총독부의 검열 등을 고려한 충고로 여겨진다.

윤동주는 필사본 3부를 만들어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연변 집에 두고, 하나는 후배 정병욱에게 주었다. 정병욱의 어머니는 “잘 보관해야 한다”는 아들의 부탁으로 항아리에 숨겨두었다 한다. 그것이 해방 후 정병욱에서 돌아온 정병욱에 의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정병욱은 윤동주의 아우 윤일주와 의논해 윤동주의 다른 작품들을 포함



정지용 시비 앞에서 헌화하는 장석영 회장.

시켜 31편으로 유고집을 낼 때 제목이 없는 첫 시에 ‘서시’란 제목을 붙였다. 그러나 윤동주는 이 시에 제목을 붙인 바 없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 없기를,/앞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리고 ‘1941.11.20.’이라고 창작 연월일이 밝혀져 있다.

이 짧은 시에 윤동주가 시집의 제목으로 채택한 ‘하늘’ ‘바람’ ‘별’이 나온다. 따라서 이 제목은 첫 시의 제목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윤일주와 정병욱으로부터 윤동주 유고시집 서문 요청을 받은 정지용은 자세한 내막을 듣고 “무시무시한 고독에서 죽었구나. 생전에 시 한 편 발표해본 바도 없이...”라고 탄식했다. 그리고 무명 윤동주가 부끄럽지 않고 슬프고 아름답기 한이 없는 시를 남기지 않았나?”라고 썼다. 정지용의

서문은 윤동주를 암흑기 식민지 시대를 별처럼 빛내는 시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1947년 12월 28일에 쓴 이 서문을 달고 시집이 나온 날짜는 이듬해 1월 20일, 윤동주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옥사한 날(1945년 2월 16일)부터 약 3년 뒤였다.

정지용은 이에 앞서 윤동주의 유고시 ‘쉽게 씌어진 시’를 세상에 처음으로 알렸다. 그가 주간으로 재직하던 경향신문 1947년 2월 13일 자에 소개 글과 함께 게재했다. 사흘 뒤에 열린 윤동주 첫 추도회에도 참석했다. 서문 집필에 이어 시집 발간 작업까지 도왔다.

도시샤대 교정에는 정지용과 윤동주의 시비가 나란히 서 있다. 정지용 시비에는 시 ‘압천(鴨川)’이 새겨져 있다. 압천은 학교 앞을 지나는 강(가모가와)의 한자 이름이다. 윤동주 시비에는 ‘서시’가 새겨져 있다. 이들의 시비를 찾는 관광객은 1년에 약 2만 명에 이른다. 일본인 중에 두 사람의 시를 사랑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대한연론인회가 교토 도시샤대의 정지용과 윤동주 시비를 찾아 참배한 것은 의미 깊고도 감동적인 일이었다.

유자호 (본회 회우)

日언론 인터넷시대에 호외발행

<12면에 이어서>

이시야이 편집위원은 전통을 지키고, 신문의 존재감을 알리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 아사히에는 소설, 바둑, 天聲人語 칼럼 등의 연재물이 여전히 실리고 있습니다. 1904년부터 게재된 천성언어는 1면 하단에 위치까지 고정돼 있습니다.

일본 신문이 신문 산업에 큰 희망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은 한국이나 마찬가지로 신문이 아닌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일행을 안내한 나가노 기자는 작별하기 전 “아사히 신문은 큰 건물 갖고 있어 걱정 없겠다”고 하자 “우리는 부동산으로 신문을 만들어요”라고 했습니다.

9월 3일 교토에서 일행이 가장 먼저 간 곳은 민족시인 윤동주 정지용

의 시비가 있는 도시샤 대학이었습니다. 대한연론인회 장석영 회장은 시인 겸 수필가에 삼강문화회 회장을 맡고 있는 원로 문인입니다. 더욱이 일행 중에는 한국시인협회 회장을 지냈고, 지용문화회 현 회장인 KBS 파리 특파원 출신의 유자호 시인도 있어 문학적 분위기가 물씬한 편이었습니다.

일행은 두 시인의 시비 앞에서 준비해 온 헌화와 묵념을 한 뒤 유시인으로 부터 두 민족시인의 위대하고 비극적인 삶에 대한 소개를 들었습니다. 유시인의 마지막 멘트는 “역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였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이 명언은 이 날따라 여운이 길었습니다. 필자도 이날의 시적 분위기에 도취해 평소 애창하던 정지용의 시에 김희갑 작곡, 이동원 박인수 노래의 ‘향수’를 목청껏 불렀



아사히신문 편집국 방문 기념촬영.

습니다.

미시마 유키오의 소설 ‘金閣寺’로 유명해진 금각사를 둘러본 뒤 제일동포 사업가 정조문이 사재를 털어 지은 고려미술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생전에 수집한 국보급 한반도 문화재 1,700여 점이 소장 또는 전시돼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자 현 관장인 정희두 씨가 들려준 아버지의 일생은 분단의 비극,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젊어 한 때 조총련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으로

부터 배척당했고, 조총련을 탈퇴하자 북한으로부터 배척당했다고 합니다.

경북 예천이 고향인 그는 그 후 통일될 때까지 남북한 어느 곳도 가지 않기로 결심

하고, 죽을 때까지 결심대로 살았습니다. 미술관의 소장품도 정조문의 유언에 따라 통일 조국이 아니면 일본에 남아 있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행의 주요 일정은 이처럼 나름의 의미를 지닌 채 마무리 됐습니다. 일본에 머문 3박 4일 동안 하늘은 맑았습니다. 태풍 15호가 오사카에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뒤로 하고 우리를 태운 비행기는 간사이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임종건(본회사·전서울경제사장)

“700만 재외동포는 대한민국 전략 자산”

세계한민족지도자회의 정영국 이사장 인터뷰



박현수
본회 회우
연합뉴스 기자

21세기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할은 단순한 모국 향수를 넘어선다. 세계 곳곳 700만 재외동포가 글로벌 지성·경제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한국의 미래와 직결된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6월 24일 열린 세계한민족지도자회의(KILC) 창립총회에서 초대 이사장으로 선출된 정영국 전 재외동포정보센터 이사장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위대한 민족자산이자 세계 속 한민족의 저력”이라며 “이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 대한민국과 한민족 공동체의 미래를 여는 선봉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는 “KILC를 통해 전 세계 한민족 리더를 연결하고, 한류 확산과 재외동포 정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KILC 설립 취지에 대해 “AI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학자와 전문가가 모였다. 친목이 아닌 실천형 정책 네트워크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KILC라는 글로벌 우산조직을 가동해 각국 지도자들을 촘촘히 잇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1997년 재외동포청 전신인 재외동포재단 설립 초기부터 핵심역할을 수행했다. 기획실장 등을 맡아 전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하고 협력하는 장을 마련함으로써, 재외동포 사회의 연대감을 강화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돈독히 하는데 기여했다. 또 재외동포들을 위한 종합 온라인 정보 플랫폼인 ‘코리안넷’을 구축해, 실시간 정보교류와 소통도 가능하게 했다.

또 세계한민족회의의 초대·2대 이사장을 지냈으며, ‘한국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연구’로 국민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재외동포 분야 전문가로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헌신해 왔다.

KILC는 창립 전부터 활발히 활동해 왔다. 지난 몇 달간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각국의 한인사회 리더들과 교

유하며 주요 소식과 동포사회 현안을 나누는 대화방을 운영해 왔고 현재 국내외 참가자가 1천 명을 훌쩍 넘었다. 정 이사장은 “재외동포가 시대 정신에 뒤처져선 안 된다”며 “오히려 시대를 주도하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KILC는 출범 이후 해외 19개 광역 지역 본부와 국내 시·도 지역본부 조직의 구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현지 동포사회의 추천으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선정을 통해 명망있는 지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특별고문으로 유종하 전 외무부 장관과 박철언 전 정무제1장관이 참여하고 있고,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과 장흥근 전 중남미 한인연합회장도 상임고문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KILC는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서울YMCA 대강당에서 제1회 세계한민족지도자대회 및 해외동포정보센터(OKIC) 설립 1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박상철 경기대 명예교수가 발표를 한다. 이와 함께 손열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초청, ‘2045 미래 도전과 국

10월 23일 서울 YMCA대강당서 1회 대회 개최 “광복 80주년 맞아 한류와 정책 발전 선봉 되겠다”

가 대전략을 주제로 특강도 열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외국에서 한인 지도자 100명을 포함해 200명 정도가 참석하는 규모로 준비 중이며, 전흥배 재일본한국인총연합회 상임고문이 대회를 맡는다”고 전했다.

대회 주제는 ‘더 넓은 세계로, 더 큰 한민족으로’. 정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 정운찬·황교안·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를 초청해 정치·경제·문화 전반의 한민족 연대 메시지를 발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가장 강조한 의제는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이다.

“미국처럼 넓은 나라에서 투표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등록과 투표를 위



정영국 세계한민족지도자회의(KILC) 이사장이 22일 대한연론인회와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23일 제1회 세계한민족지도자 대회를 열고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연령 하향문제와 재외국민 우편투표제를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박현수 기자)



세계한민족지도자회의(KILC) 창립 총회서 축하하는 박철언 KILC 특별고문(전 정무제1장관). <세계한민족지도자회의의 제공>

해 2~10시간씩 운전하거나 비행기를 타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물리적 제약 때문에 투표참여율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우편투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는 복수국적 문제도 짚었다. “현재 이중국적 연령을 병역 문제 때문에 65세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현실과 맞지 않다. 최소 45세까지는 허용해도 된다”며 “복수국적 확대는 해외 인재 유치, 저출산 해결, 동포 유학 확대와 연결된다”고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올해는 광복 80주년, 6.25전쟁 발발 75주년,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 102주년, 고려인 강제 이주 88주년을 맞는 해”라면서 디아스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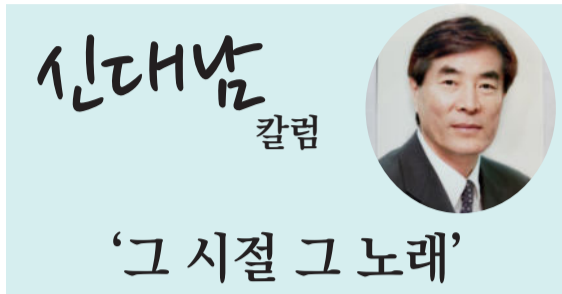
의 희생과 헌신을 되새겼다. 이어 “기후 위기와 AI 혁신 시대에 재외동포들이 갖는 정보력과 자본, 글로벌 인맥은 국가의 전략적 자산”이라며 KILC는 경제영토 확장의 선봉이자, 한류 문화 전파의 첨병 역할을 자임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재외 동포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에도 경종을 울렸다.

“700만 재외동포의 삶은 낭만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피눈물 나는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가 가진 정보력, 자본력, 인간관계는 대한민국이 대외 의존도를 극복하는데 핵심 자산입니다. 이 자원을 모으고 연결하는 것이 KILC의 책무입니다.”

한 시대의 스타였지만 쓸쓸했던 여인

영화 '백치아다다' 나애심... 허스키 목소리 가슴 울려



<10>

배우나 가수들이 연기하고 노래하는 드라마의 인물이 운명처럼 자신의 삶으로 현실화 되는 일이 있다. 1950~60년대를 풍미했던 글래머 스타 겸 가수 나애심이 1956년 영화 '백치 아다다'의 주연을 맡고 주제가를 불렀다. 세월이 가고 필자가 기자였던 1983년 7월 나애심을 만났다. 이제는 인기의 뒤안길로 한 걸음 비켜선 배우, 가수, 영화감독, 작곡가 등 당대의 스타들을 만나 무대 뒤의 숨겨진 이야기와 근황을 인터뷰해서 팬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갈채는 끝이 없이'라는 기획 기사를 일간 스포츠에 연재하는 취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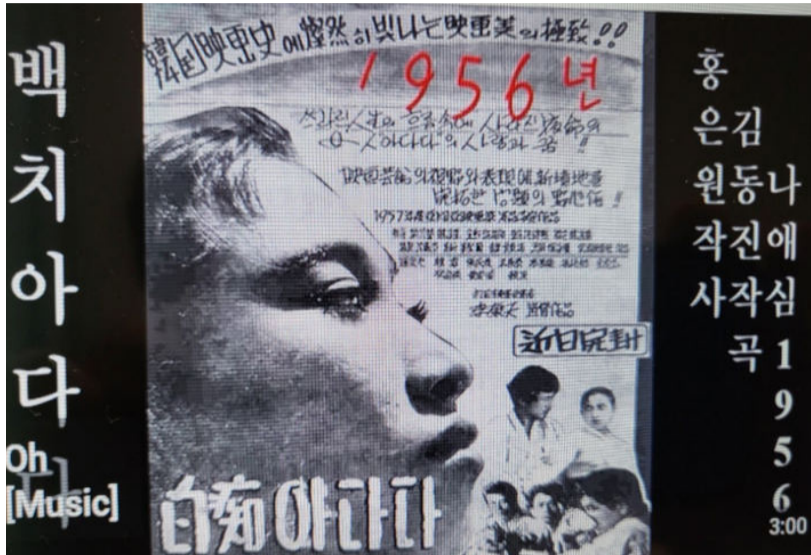
그때까지 나애심은 당대의 스타이면서도 사생활이 별로 노출되지 않았다. 기자도 나애심이 서구적인 미모의 글래머 스타라는 화려한 이미지만 갖고 있을 뿐 별다른 사생활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 나애심의 이야기가 시작부터 의외로 쓸쓸해서 아직껏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하는 인사말에 나애심은 그동안 많이 참았다는 듯이 의외의 얘기를 했다. "요즘 '백치 아다다'를 부르면 웬지 서글프고 눈물이 나요. 제가 '백치 아다다'의 영화도 주연하고 노래도 불렀는데, 그때는 영화 속의 주인공이고 주제가를 부른 가수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말 못하는 아픔으로 살아온 백치 아다다가 바로 저였다는 것을 알았어요" 화려하게만 보였던 한 시대의 스타가 신문 기사의 제목이 될 만한 무대 뒤의 삶을 처음으로 얘기하는 순간이었다. 그동안 말 못하고 참고 살았던 세월이 '백치 아다다'만큼 많이 쌓이고 답답했던 것 같았다.

'백치 아다다'는 홍은원이 작사하고 김동진이 작곡한 영화의 주제가다. 나애심의 허스키한 목소리와 눈물나는 연기가 그 시대를 울렸다. "초여름 산 들바람 고운 불에 스칠 때/ 검은 머리 금비녀에 다 흥치마 어여빠라/ 꽃가마에 미소 짓는 말 못하는 아다다야/ 차라리 모를 것을 짧은 날의 그 행복..."

그리고 물었다. "남편분은 뭐 하세요"하는 말에 "자세한 얘기는 하고 싶지 않지만, 지난 16년 동안 23세와 중3인 두 딸을 혼자 키우며 살았어요. 가장 무서운 건 외로움이었어요. 유혹도 많았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고 견디고 살았어요"라고 의외의 얘기를 했다. 그래서지 서구적 미모의 글래머였던 그에게도 세월이 스치고 있었다. "...산 넘어 바다 건너 행복 찾아 어디 갔나/ 말하라 바닷물결 보았는가 갈매기 떼/ 간 곳이 어디메뇨 대답없는 아다다야"

영화 '백치 아다다'는 1956년 계몽극의 단편소설을 영화화한 1950년대 한국 영화의 대표작이다. 이



1956년 -백치 아다다-의 영화 포스터. 그 시절 순박한 사람들의 눈물을 자아냈다.



영화 -백치 아다다-의 나애심. 그의 출세작이자 1950년대 한국 영화의 대표작이다.



서구적인 미모의 육체파 배우, 가수로 한시대를 풍미했던 나애심.

하지만, 순수하고 선량한 삶이 물욕 앞에서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백치 아다다'는 극명하게 보여준다.

나애심을 화려하게만 생각하고 외롭고 어려운 세월을 사는 한 어머니라는 생각을 필자는 하지 못했었다. 듣고난 뒤에야 그 쓸쓸한 이야기가 비단 나애심만의 얘기만이 아니라 무대 뒤의 또 다른 스타의 이야기를 엮은 것 같은 느낌이였다. 간간이 들리는 그 시절 스타들의 사생활이 화려한 걸 모습과 달리 어두운 드라마를 보는 듯한 이야기들이 들리던 때였다.

나애심의 본명은 전봉선으로 평남 진남포 출생

아름답고 평범한 노년의 삶에 박수갈채

강천 감독이 연출하고 나애심이 백치 아다다역을 맡아 놓인 여주인공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주제가도 불러 그 시대를 풍미했다. 당시 최고 배우였던 황해, 박노식 등이 출연한 호화 캐스팅이었다. 노래는 훗날 문주란이 다시 불러 다시 유행하고, 영화도 1987년 임권택 감독이 '아다다'로 리메이크해서 백상예술대상의 대상을 받기도 했다.

아다다는 관찮은 집안의 딸이지만 백치여서 시집을 가지 못했다. 열아홉이 돼서야 한 섬지기 농지를 주고 가난한 노총각에게 시집을 갔다. 처음엔 사랑을 받았지만 먹고 살만해진 시집 식구들과 남편이 구박하고 다른 여자를 데려와 아다다가 쫓겨난다. 친정에서도 구박을 받다 늙은 총각을 만나 섬으로 도망을 간다. 그 남자가 모아둔 돈으로 농지를 사자고 하자 전 남편이 여유가 생기면서 쫓겨난 생각을 하고 돈을 모두 바다에 버린다. 격분한 남자가 아다다를 바다에 밀어 빠트린다. 간혹, 이 시대 우리 사회의 빛나간 풍경 같기도 하다.

나애심이 자신이 연기하고 노래한 '백치 아다다'를 왜 자신에게 대입시켰는지 깊은 사연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묻지도 않아서 알지 못한다. 느낌만 있다.

이다. 예명 나애심은 '빈대떡 신사'의 가수 한복남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지어줬다. 20세에 6.25가 터지고 1.4 후퇴 때 남하해 1953년 피란 시절 대구에서 KBS 악단장이자 오빠인 작곡가 전 오승의 '밤의 탱고'로 오리엔트레코드사에서 데뷔했다. 1956년 '백치 아다다' 1959년의 '과거를 묻지 마세요' '미사의 종' '언제까지나' '황혼은 슬퍼' '세월이 가면' 등 삼백여 곡의 주옥같은 노래를 불렀다.

영화는 '백치 아다다'가 여배우 나애심의 출세작이자 1950년대 한국 영화의 대표 걸작이 됐다. 그리고 '과거를 묻지 마세요' '아카시아 꽃잎 필때' '감자' 등 1백여 편의 영화에서 술집 마담, 시골 촌부, 세련된 사모님, 조선시대의 한 많은 여인까지 폭넓은 연기를 보여줬다.

필자는 '갈채는 끝이 없이'의 기사 말미를 "지금 나애심은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행복으로 사는 아름다운 여자입니다. 그에게 변함없는 박수를 보내주세요"라고 썼다. 그 후 나는 나애심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3년 전이야 5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애심은 스타였지만 아름답고 평범한 삶으로 한 시대를 경험하고 간 여인이다. ☞

손흥민, LA교민들 ‘희망’ 되었다

8월 EPL 토트넘 → LA이적...매경기 활약

스포츠 코너

“나는 여전히 적응 중이다. 지금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지난 8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에서 대서양을 건너 미국 메이저 리그 사커(MLS) 로스앤젤레스(LA) FC로 둠지를 옮긴 ‘리빙 레전드’ 손흥민(33)이 펄펄 날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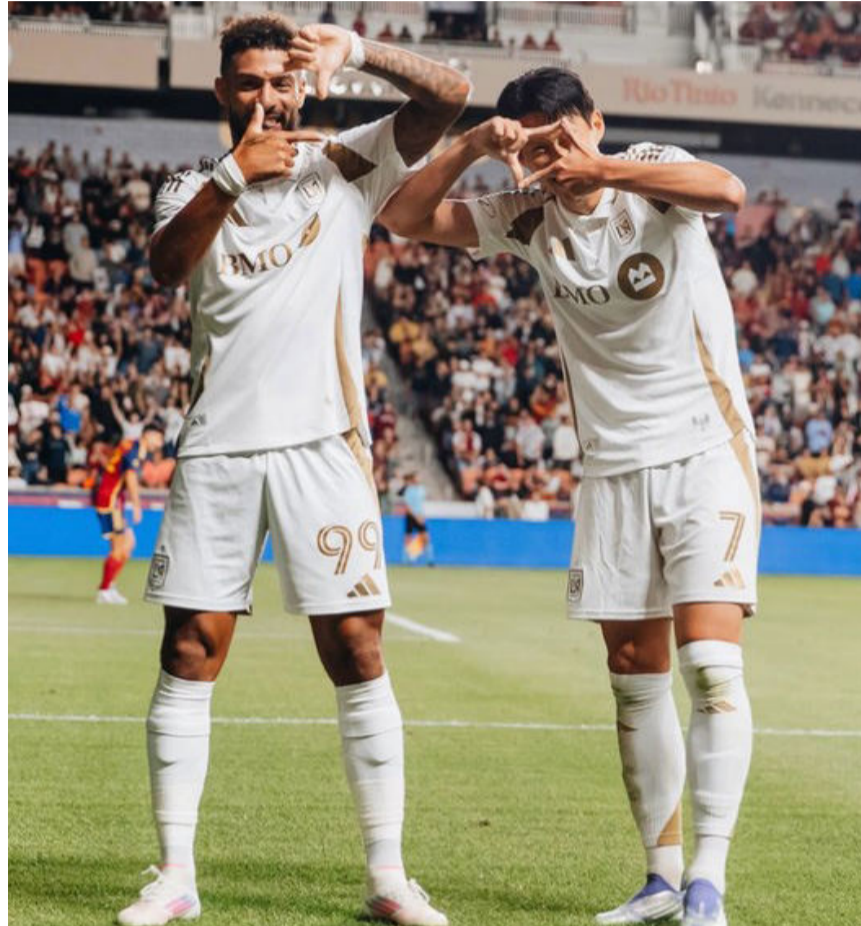
지난 9월 22일(한국시간)까지 7게임에 나서 6득점 3도움으로 매 게임 공격포인트를 기록하며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손흥민의 활약으로 LA FC는 서부 콘퍼런스 4위에 올라섰고 LA 거주 교민들이 5만여 관중석을 메워 LA FC 구단 또한 즐거운 비명이다. 교민이 거의 없는 토트넘에서 2015년부터 만 10년을 뛰다 LA에서 교민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는 손흥민으로서는 힘이 절로 솟는 나날이다.

손흥민, 역전 결승골...팀내 득점 2위

손흥민은 지난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BMO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MLS 정규리그 홈경기에서 레알 솔트레이크를 상대로 1골 2도움을 기록하며 86분간 활약했다.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0대 1로 끌려가던 전반 46분 가봉 국적의 데니스 부앙가(31)와 원투패스를 주고받으며 동점골을 도왔다. 이날 부앙가는 MLS 30년 역사상 최초로 3시즌 연속 리그 20골을 돌파했다. 특유의 ‘텀블링 세리머니’로 골을 자축한 그는 손흥민과 뜨거운 포옹으로 기쁨을 나눴다.

손흥민도 2분 뒤인 전반 48분 페널티 박스 바로 앞에서 왼발 중거리포를 터뜨리며 리그 6호 골을 신고했다. 여기에 후반 27분과 41분 부앙가가 연속으로 두 골을 더 몰아치며 해트트릭을 완성하면서, LA FC는 레알 솔트레이크를 4대 1로 꺾었다.

손흥민의 득점이 역전 결승골이 된 가운데, 이번 득점으로 손흥민은 LA FC 입단 이후 7경기 만에 6골을 올리며 부앙가에 이어 팀 내 득점 2위로 올라섰다. 손흥민은 지난 14일 새너제이 어스퀘이크스전(1골)을 시작으로 18일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원정경기(3골)에 이어 이날 레알 솔트레이크와 홈경기에서도 골 맛을 보며 3경기 연속골(6골)을 기록했다.



손흥민(오른쪽)이 '환상의 듀오' 부앙가와 '찰칵 세리머니'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연합)

7게임 출전...6득점-3도움 공격포인트 올려 ‘흥부듀오’ 부앙가와 찰떡호흡 해트트릭도

손흥민과 부앙가, 일명 ‘흥부 듀오’의 맹활약 속에 LA FC는 승점 50(14승 8무 7패)으로 4위를 공고히 하며 MLS 컵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PO) 진출을 조기 확정했다.

이번 경기로 부앙가는 리그 22골 고지를 밟았다. 이는 리오넬 메시(38·인터 마이애미)와 함께 MLS 득점 공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 손흥민이 합류한 뒤 부앙가는 메시에 무섭게 따라붙으면서 득점왕 경쟁에도 불을 붙였다.

부앙가는 자신의 커리어 하이도 경신했다. 그는 정규리그 기준 2023시즌 31경기 20골, 2024시즌 32경기 21골을 기록했고 올 시즌엔 28경기에서 22골을 뽑아냈다. LA FC 통산 성적도 146경기 97골이 됐다. 구단 역사상 최다 득점자에 오른 부앙가의 한 골 한 골은 LA FC의 새 역사다.

손흥민 덕분에 전성기 맞은 부앙가

부앙가는 손흥민의 합류 덕분에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MLS는

둘을 ‘다이내믹 듀오’라고 부르며 모두가 무서워할 조합이라고 극찬한다. 실제로 파블로 마스트로에니 솔트레이크 감독도 두 선수를 ‘리그 최고의 공격수 두 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손흥민과 부앙가는 경기장 안팎에서 ‘찰떡 호흡’을 자랑한다. 둘은 로커룸이나 버스를 탈 때, 휴식할 때도 딱 붙어있으며 서로의 세리머니를 따라하는 모습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축구 전문 매체 ‘골닷컴’은 “부앙가는 한때 팀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 같았지만, 달라진 것 같다. 손흥민은 최소 두 시즌은 여기에 더 있으며 여기에 더 오래 머무를 수도 있다”고 손흥민 효과에 주목했다.

실제 손흥민이 상대 수비의 시선을 끌면서 부앙가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앞서 부앙가도 “손흥민이 들어오면서 내게 더 많은 공간이 생겼다. 지금은 그가 집중 견제를 받으며 고립되는 순간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둘은 경기장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시너지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손흥민과 부앙가는 첫 만남부터 서로를 배려했다. 지난 8월 손흥민이 LA FC 데뷔전에서 페널티킥을 얻어 내자 전담 킥어인 부앙가는 그에게 차라고 했다. 그러나 손흥민은 부앙가에게 양보했고, 이는 귀중한 동점골로 이어졌다. 당시 부앙가는 “심판이 페널티킥을 선언하자마자 난 당연히 손흥민에게 공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페널티킥을 차길 원하지 않았다. 난 3번이나 그에게 ‘이건 네거야’라고 했다. 첫 골을 넣을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는 내 공이라고 하면서 거절했다”라고 뒷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축구 전문매체, 손흥민 극찬

축구 전문 매체들도 손흥민의 MLS 진출에 긍정적 반응이다. ‘골닷컴 US’는 “손흥민의 LA FC 합류는 리오넬 메시와 함께 MLS 판도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울러 LA 한인사

회의 사기 진작에도 한몫하고 있다. 하지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매 순간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 뛰어난 선수”라고 밝혔다.

영국 BBC는 “손흥민이 경기 시작 16분 만에 두 골을 퍼부었다. 그리고 결국 후반 37분 세 번째 득점을 만들어 미국 무대 입성 후 첫 해트트릭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손흥민의 활약상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그의 인터뷰까지 전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를 통해 “MLS에서 첫 해트트릭을 달성해 정말 기쁘다. 나는 LA FC에서 뛰는 것이 즐겁다. 홈에서 지금까지 한 경기만 뛰었지만 괜찮다”며 “팀에 도움이 되고 싶고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유력지 ‘마르카’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해 “손흥민이 미국 입성 6경기 만에 해트트릭을 달성했다. LA FC는 해당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고 보도했다.☞

이종세(본회 부회장·전 동아일보 체육부장)

회우 광장

한국은 과연 '기회의 땅'인가?



한영탁
본회 자문위원·수필가

신대륙 발견 이후 북아메리카 지역은 기회의 땅으로 떠올랐다. 비옥하고 광활한 평원과 울창한 삼림을 품은 산하는 낡고 대륙 유럽을 탈출하려는 사람들에게 어서 오라고 손짓했다. 잦은 전란과 가난, 국왕과 영주, 신형 중상계급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던 사람들은 자유와 새로운 기회를 찾아 험난한 대서양의 파도를 넘었다. 그들에게 신대륙은 동경의 땅이었다. 종교적 박해에 시달리던 이들에게는 신앙 자유의 지평을 열어줄 새로운 가나안 땅이었다.

영국의 북아메리카 13개 식민지가 독립혁명을 통해 미합중국(USA)을 세웠다. 이 신생국은 온 세계로부터 몰려온 인종과 국적이 다른 민중을 고대 아테네 이후의 첫 민주주의 국가, 미합중국이라는 거대한 용광로(melting pot)에 넣어 하나의 새로운 시민을 빚어냈다. 그렇게 여러 민족의 이민으로 출범하여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우뚝 선 미국은 이제 중국의 패권 도전에 직면하자 외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 이민의 장벽을 더 높이 올리고 태생적인 고립주의,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 한다. 가난한 중남미 등지로부터 더 나은 삶의 기회를 찾아 몰려드는 밀입국자들을 막으려 빗장을 조인다. 값싼 제조상품과 공자(孔子)학원을 앞세워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의 소비산업과 영혼을 공략하는 차이나(China)의 침투를 막으려 한다. 이제 USA 용광로의 펄펄끓던 쇠물이 식어간다.

한때 아메리카는 우리에게도 매혹적인 희망의 땅이었다. 달러와 풍요가 넘치는 엘도라도(황금의 땅)로 비쳤다. 그래서 우리의 산업화 초기, 더 나은 기회와 꿈을 좇아서 아메리카로 향하는 동포들이 줄을 이었다.

그에 앞서 한때 일본도 우리에게 기회의 땅이었다. 산업화 이전, 경제가 침체되어 실업자가 넘쳐나던 60, 70년대, 호황을 구가하던 이웃나라 일본은 대망의 땅이었다. 인적 교류가 차단된 시절 대한해협을 넘어 일본으로 몰래 숨어들어가는 한국



인들이 많았다. 동포 밀항자들은 운이 좋으면 공장이나 공사판 막노동자로 엔화(貨)를 만질 수 있었다. 하지만 오무라(大村) 불법입국자수용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는 밀항자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제 세계의 판도가 바뀌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코리아가 기

신조어까지 신기할 만큼 잘해서 놀라울 정도다.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대학에서 우리말을 배워 술술 말하는 외국인들도 늘고 있다. 세종학당은 수요가 급증하여 이제 85개 나라 248개 처로 급증했다. 수강 신청자가 줄을 이어 반년 이상 대기자가 밀린다. 한국

한류열풍 타고 '꿈의 나라' 한국행 러시 고물가·정치분열 민낯에 외국인 큰 실망

회의 땅으로 떠오르는 믿기 어려운 신화적 시대가 온 것 같다. 선진국 반열에 합류한 한국의 경제적 성취와 세계를 매혹시킨 K팝, K드라마, 영화 등 K컬처(문화)가 불붙인 한류(韓流·Korean Wave) 열풍을 타고 한국을 선망하는 지구촌 주민들이 날로 불어나고 있다. 처음 그들은 방탄소년단(BTS)이나 뉴진스의 춤과 노래에 반해 노랫말을 읽는다. 우리 연속극이나 영화를 자막없이 보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한국을 역동성과 특유의 정(情)이 넘치는 기회의 땅으로 여겨 한국행을 갈망하게 된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예 한국에 와서 정착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우리와 어울려 살기를 꿈꾸게 된 이국 젊은이들이 많아진 듯하다.

그리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뜨겁게 일고 있다. 한글은 익히기 쉽지만 우리말은 배우기 어렵다. 한국어는 학습 난이도가 높은 언어이다. 하지만 용케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한 독학만으로 우리말을 곧잘 구사하는 이방인들이 많아졌다. 속담, 속어, 사자성어(四字成語), 요즘 젊은이들끼리 쓰는 줄임말,

어와 한국학을 가르치는 외국 대학도 2024년 기준, 107개국 1,388개 교에 이른다. 참으로 놀랍다. 어느새 높아진 국가적 위상에 어깨가 으쓱해진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기회의 땅을 찾아 몰려오는 이방인들을 기꺼이 끌어안을 준비가 돼 있을까.

적어도 지금 한국인들에게 위정척사(衛正斥邪)를 내세워 쇠국만 고집한 조선시대의 미련했던 외국인혐오증(제노포비아·xenophobia)은 사라진 지 오래다. 하지만 나는 이런 겉보기와는 판판인 우리 현실과 속살이 한국을 꿈의 나라로 믿고 찾아오는 외국인들에게 좌절과 실망을 안기고 상처를 입힐까 봐 두렵다.

우리 현실은 무섭다. 당장 식료품을 비롯한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높은 집값도 문제다. 세계적 불황 속에서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 휘청댄다. 매머드 좌파 여당의 노란 봉투법 따위의 반기업적 산업정책과 기업활동을 옥죄는 규제, 공룡 노조의 횡포로 대기업과 부품업체들이 함께 곤경에 허덕인다. 기본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과 첨단 스타트업 업체들의 어렵기도 마찬가지

이다. 실업률이 치솟고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를 찾지못해 허송세월하는 청년 실업자가 넘쳐난다. '헬(hell)조선'이란 자학적 탄식이 불거져 나온다. 한국을 지상 낙원인양 동경하는 외국인들이 발발여 일하고 살아갈 틈새를 찾을 수 있을지 염려된다.

뿐만 아니다. 더 큰 걱정거리가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 크게 분열돼 있다. 분단의 저쪽 땅 북(北)은 핵무장을 갖추고 시도 때도 없이 무력 침공을 들먹여 안보 불안을 날로 가중시킨다. 기적적인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건국 자체를 부정하는 가짜진보(pseudo progressive) 세력이 민중, 민족주의 깃발을 흔들며 체제 전복을 꾀하고 있다. 그들이 전체주의 체제로 권력을 틀어잡기가 목전에 와 있다. 이런 이념적, 정치적 분열로 빚어진 사회적 갈등과 증오, 대립과 반목이 극에 이른 것이 이 땅의 오늘이다.

이런 우리 민낯을 보게 될 때 한국 진출을 열망하는 이방인들의 실망과 허탈감과 좌절은 얼마나 클까. 이 나라의 내일은 어디로 갈까? 나이 아흔을 앞둔 사람이 나라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밤새 뒤척인다. ☞

이달의 시

소확행

가을비 내리는 오후엔
종로 피맛골에 가자

막걸리 한 사발에
빈대떡도 좋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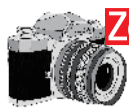
소주 한 잔에
생선구이도 좋다

동동주면 어떠랴
김치전이면 더욱 좋다

30년 벗과 함께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있으랴

가을비 내리는 10월 오후
우리 모두 피맛골에 가자

이규진
본회 총괄부회장



Zoom in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풍요로운 황금들녘은 시간전쟁 중



열매들이 살찌고 충만한 완성을 이루는 결실의 계절. 풍요로운 황금들녘을 지키는 파수꾼이 일상의 자리에서 명상에 잠긴다. 알곡이 무르익고 고개를 숙일 무렵 생존의 약탈을 위해 새들은 날아올 텐데...그 이름 허수아비는 마지막 여름의 따듯

한 햇살만 반길 뿐이다. 한가로운 가을 풍경 속에 지금은 시간의 전쟁이 펼쳐지고 있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사진:정재필 본회 회우〉

명품인생



미궁(迷宮)의 국민, 지금 방탈출 게임 중인가

요즘 젊은 세대의 인기의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탈출 게임은 일종의 미궁(迷宮) 탈출 놀이이다. 놀이이기에 망정이지 이것이 실제라면 명재경각(命在頃刻) 목숨을 내놓은 상태다. 원래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이벤트 형식으로 열리던 것이 거의 세계적인 유행을 타고 있다. 처음엔 서울 홍대 및 강남을 중심으로 시작된 것이 지금은 200개 이상의 탈출 시설이 성업중이다. 탈출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극한의 상황에서 모든 용기와 기지를 발휘해야하기에 스릴이 넘친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는 지금 실제의 미로(迷路)를 헤매고 있다. 여야 마찬가지로 미궁에 빠진 셈이다. 살길은 미로를 벗어나는 실마리를 잡는 것뿐이다. 무슨 수로?

미궁은 한 번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얽힌 구조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을 표현할 때 신화나 문학 등에서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 독일 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낙소스의 아리아드네(Ariadne auf Naxos)’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궁을 비탕으로 다루고 있다. 국내에서는 비교적 생소한 오페라지만 그 제목의 아리아드네란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다.

아리아드네는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크레타의 왕 미노스의 딸이다. 미노스왕은 왕비 파시파에가 황소와 관계하여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우두인신(牛頭人身)의 괴물을 낳자 명공(名工) 다이달로스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는 문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라비린토스를 만들게 하고 이를 그 곳에 가둬버렸다. 이 라비린토스가 다름 아닌 미궁 또는 미로의 원형이다. 유럽에서는 이 신화를 힌트로 왕궁 등의 통로에 미로를 많이 응용했는데 이 중 영국의 튜더왕조(1485~1603)에서 스튜어트왕조(1603~1714)에 이르는 시기에 템즈

강가의 사우스워크, 그리니치에 만들어진 것들이 유명하다.

특히 윌리엄 3세가 1690년 건축가 런던·바이스 등에게 만들도록 한 햄프턴 코트 궁전 정원 안의 미로는 지금도 그 이름이 회자되고 있다. 이 왕궁의 미궁은 민간에서도 모방 제작하게 되면서 일종의 구경거리 모험 탐방용으로 흥행에 이용되기도 했다.

절이지만 일망타진해야 할 범죄자들이 우글거리고 철면피(鐵面皮)한 정치인들은 국민 앞에서 방약무인(傍若無人)하다. 흥미한 정국은 오리무중(五里霧中)이요, 뭉친 빛에 전전긍긍(戰戰兢兢)하는 이들은 자포자기(自暴自棄)상태에 빠졌으며 유언비어(流言蜚語)가 창궐하니 또 무슨 청천벽력(靑天霹靂)같은 뉴스가 터져

우리에게 누가 아리아드네의 실을 묶어줄까

* 크레타의 미노스왕은 라비린토스에 가둔 괴물의 먹이로 아테네로부터 해마다 7인의 소년과 소녀를 데려와 미궁에 집어넣었다. 그 제물 가운데 소년 영웅 테세우스가 있었다. 아테네의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로스를 없애려고 작심하여 크레타섬으로 왔다. 그때 테세우스를 보고 한눈에 사랑에 빠진 아리아드네는 죽음의 미궁으로 들어가는 그의 몸에 실타래를 묶어 놓았다. 마침내 미노타우로스를 죽인 테세우스는 아리아드네의 실을 따라 무사히 미궁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 우리 주변을 둘러보자. 지금은 천고마비(天高馬肥)의 아름다운 계

나올지 모르겠다.

국회의 혼돈으로 정국이 시끄럽고, 바닥을 어슬렁거리는 경제는 이제 가난한 이들을 더욱 슬프게 하고 부자를 또 불안케 만든다.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외쳐대며 ‘금단의 열매’를 훔친 이들의 ‘위험한 관계’가 노출되는 세상이라면 애꿎은 우리 국민들이야 그저 ‘시지푸스의 바위’를 굴리는 가혹한 시련이나 각오할 수밖에 없다.

누가 우리 허리에 아리아드네의 실을 묶어줄 것인가. 누가 우리에게 아리아드네의 실을 묶어줄까.☞

〈강이산·극작가〉

“1천억원이 그 사람 詩 한줄만도 못해”

‘로맨티스트’ 백석과 子夜(자야) 리브스토리

바다가 있고 섬이 있는 땅끝마을 ‘토영’으로 문학 기행을 떠난다. 배를 타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한산도 답사를 한 뒤 강구안 문화마당 뒷골목 돼지국밥 집에서 ‘좋은데이’ 한 잔과 국밥 한 그릇으로 배를 채우면, 하룻저녁이 행복하다. 그 뒷골목 적산가옥의 벽면에는 백석 시인의 시 ‘통영’ ‘나와 나타사와 흰 당나귀’ ‘가즈랑집’ ‘주막’ 등 여러 개가 액자로 걸려있다. 또 옆이면 코담을 중앙시장 삼거리에서 세병관, 서문고개 너머 충렬사 앞 명정 우물가에는 백석 시비가 우뚝 서있다.

평안도(정주) 고향 사투리를 시에 나타내는 향토색 짙은 서정시인 백석(1912~1995)은 어떤 연유로 남쪽 나라 ‘토영’과 인연을 맺은 것일까? 때는 1934년 스물세 살 청년 백석은 ‘모던 보이’로 광화문통을 주름잡았다. 모발을 모두 뒤로 넘긴 올백, ‘료마에’라는 두 줄 단추가 달린 양복 차림에 반짝 광을 낸 구두를 신고 빠른 걸음으로 내닫는 그의 모습에 못 여성들은 입틀막을 하며 괴성과 탄성을 질렀다. 초현실적 유행의 첨단을 걷는 멋쟁이는 아오야마학원 영어사범과 출신으로 조선일보 기자이자 시인이었다.

그 이듬해 절친 허준의 결혼식 축하연에서 백석은 한 아가씨를 발견하고는 아찔해 정신을 잃을 뻔했다. 이화여고보 학생인 18세 통영 아가씨 박경련이었다. 가르마를 정갈하게 탄 까만 머리, 가름한 얼굴, 유난히 반짝이는 두 눈, 무엇보다 입가에 흘리는 조용한 미소가 매력적이었다. 백석은 평소 좋아하는 여인을 ‘난(蘭)’이라 불렀다. 난에게 혼을 빼앗긴 탓인지 ‘통영’이란 제목의 시를 세 편이나 썼다. 1935년 ‘조광’ 12월호에 ‘통영’을 발표한 후 두 달 만에 같은 제목의 시를 발표했다.

통영2

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던데
명정골은 산을 넘어 동백나무 푸르른
감로 같은 물이 솟은 명정 샘이 있다던데
(하략)

넷 장수 모신

낮은 사당의 돌층계에 주저 앉아서
나는 이 저녁 울 듯 울 듯
한산도(關山島) 바다에 뱃사공이 되어가며
냉 낮은 집 담 낮은 집
마당만 높은 집에서 열나흘 달을 업고
손방아만 짙는 내 사람을 생각한다

이 시는 1936년 1월 23일자 조선일보에 실렸다. 시집 ‘사슴’을 출간한 직후였다. 지금 백석 시비가 있는 곳에는 해(日) 우물, 달(月) 우물, 합쳐서 명정(明井)이라 부르는 우물이 있다. 백석은 통영 출신으로 같은 신문사 동료인 신현중과 함께 통영을 찾은 적이 있었다. ‘통영의 그녀를 이 길로 업고 와야지.’ 스물다섯의 백석은 난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었다. 그런데 “경련이는 개학 준비를 해야 한다며 경성으로 올라갔다”는 외사촌 오빠의 말을 듣고서 낙심천만했다.



거짓말이길 바라면서 충렬사 계단에 앉아 명정 우물가 처녀들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1936년 말 백석은 친구 허준과 함께 통영을 방문했다. 사촌오빠를 통해 난의 어머니에게 청혼 사실을 알렸으나, “백석의 어머니가 기생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다”면서 일언지하에 거절을 당했다. 신현중이 발설한 이 말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채 백석과 난을 이어줄 오작교를 산산이 부숴뜨렸다.

백석은 1936년 4월 신문사 입사 2년 만에 사표를



6개월 만에 그 만두었다. 또 안동세관에서 잠시 근무하면서 화가 문학수의 동생 문경옥과 결혼해 1년 남짓 신혼살림을 차렸으나 곧 이혼했다. 문경옥은 그후 북한에서 김일성의 배려로 최고의 여성 작곡가로 성장했다. 해방

이 되자 고당 조만식은 소련 군부 장성들과 소통을 위해서 러시아어에 능통한 백석을 통역비서로 곁에 두었다. 그때 열네 살 아래 리윤희와 평양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대동강이 내려다보이는 부벽루 근처에 신혼집을 마련했다.

백석과 헤어지고 8.15광복, 6.25 전쟁으로 남북은 허리가 잘려 오도가도 못하게 됐다. 1951년 자야는 피란지 부산에서 ‘김숙’이라는 가명을 쓰면서 일급 사교장인 요정을 경영했다.

‘짝사랑’ 통영아가씨와는 인연없이 결별 ‘자야’는 요정 대원각 경영...길상사 기부

내고 함흥 영생고보 영어교사로 부임했다. 동료 교사의 송별연에서 또 운명의 여인을 만났다. 기생 김진향. 그녀와는 북녘의 짧은 겨울밤을 지새울 정도로 깊은 사랑을 나누었다. “마누라! 당신은 내 마누라야”라면서 ‘자야(子夜)’라는 아호를 지어주었다. 또 ‘나와 나타사와 흰 당나귀’라는 헌시(獻詩)를 지어 바쳤다.

1937년 백석이 흠모하던 박경련과 그의 절친이던 신현중이 결혼했다는 소식이 함흥으로 날아들었다. 이즈음 백석은 조선일보 출판부 기자로 인연을 맺은 소설가 최정희, 시인 노천명, 모윤숙 등 ‘모던 걸’들과 자주 어울렸다. 그해 12월에는 부모의 강요로 경성으로 와서 결혼을 했으나 곧바로 헤어지고 함흥으로 되돌아갔다. 1939년 교사 생활을 접고 한성에 돌아와 청진동에서 자야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조선일보 ‘여성’지 편집주임으로 일했다. 이때 부모의 성화로 충북 진천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올렸지만 다시 자야에게로 돌아왔다.

그해 10월 조선일보사를 사직한 백석은 자야에게 만주로 가자고 제안하지만 거절당했다. 자야는 혼자 짐을 꾸려 백석 몰래 경성으로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백석은 1940년 29세의 나이로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수도 신징으로 갔다. 그곳 국무원 말단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창씨개명의 압박이 계속되자

자야는 1955년 북악의 계곡물이 흐르는 서울 성북동 배밭골에 음식점(정암장)을 차렸다. 3공화국 시절 고관대작, 정객들이 드나들던 장안 3대 요정(삼청각, 청운각) 중 하나인 대원각으로 키웠다. 1987년 일흔이 넘은 그녀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읽고, 깨달은 바 있어 법정에게 당시 1000억 원을 호가하는 7천여 평의 대원각 터와 40여 개 부속건물을 절로 만들어주길 청했다.

“시주한 천억 원이 백석 시 한 줄만도 못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시를 쓸 거야.”

‘월북문학가’로 금기시되던 백석이 1988년 해금되자, 그녀는 1989년 수필집 ‘백석, 내 가슴속에 지워지지 않는 이름’을 발표했고, 1995년 ‘내 사랑 백석’을 펴냈다. 1997년 마침내 첫날 법회에서 ‘맑고 향기로운’ ‘길상화(吉祥華)’라는 법명과 염주 한 벌을 받았다. “나 죽으면 화장해서 눈이 많이 내리는 날 길상현 뒤뜰에 뿌려 주시오”라는 유언대로 1999년 11월 그녀의 유골은 뿌려졌고, 공덕비 옆에 백석의 시 ‘나와 나타사와 흰 당나귀’가 세워졌다. 1996년 ‘로맨티스트’ 백석은 여든다섯 살을 일기로 북한 삼수군 관평리 집단농장에서 숨을 거두었다. 유족으로는 부인 리윤희와 3남 2녀를 두었다.

(김동철: 교육학박사·이순신연구가·한국소설가협회 회원·국민권익위 청렴전문강사·전 중앙일보 기자)

“국민과 유리된 군대는 미래성과 같다”

대한언론인회 양구 역사문화 탐방
세미나 주제 ‘軍의 대민 전략 소통과 효율성’



김동철
대한언론 편집위원
이순신 인성리더십포럼 대표

홍보는 현대 사회에서 조직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나 조직은 물론 국방과 안보 분야에도 홍보는 절대적이다. 기밀 사항이 많은 국방 관련 분야일지라도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2018년 ‘참여 국방’의 홍보 방향은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 ‘국민의 애정을 받는 안보’에 맞춰지고 있다. 이는 국민의 뜻을 정책에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보, 국민과 함께하는 안보를 지향한다는 ‘전략적 소통’(Strategic Communication) 목표와 맥을 같이 한다. 전략적 홍보인 국방 S/C란 국가 안보전략 차원에서 유형의 물리적인 전력을 제외한 ‘마음과 생각을 향한 심리전’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부가 제정하여 배포한 ‘국방 전략적 소통(S/C) 훈령’(2017.3.7.)에 따르면 국방 전략적 소통에 대한 용어 정의가 되어 있다. 국방 S/C는 군의 기본 책무로서 국방 문제에 대해 국민의 신뢰와 지지여론을 확산하면서 나아가 동맹국 미국을 비롯하여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대하고,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데 기여해야 한다. 국방차원의 전략적 소통은 국방 목표 달성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소통대상의 인식·태도·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에 따라 전략적 소통의 목표는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 태세 확립’이다. 단순한 홍보나 부정적 보도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 소통 대상과의 통합된 의사소통 체계화 과정이다. 국방목표는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 평화에 기여를 뜻한다. 따라서 국방 S/C를 통해서 ‘국민이 신뢰하는 굳건한 국방 태세 확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군(軍)과 시민사회는 국가 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동반자 관계이다. 그러나 12.12 군사반란과 12.3 비상계엄 같은 불행한 사건은 군과 시민사회 간 불신과 갈등의 골을 깊게 만들었다. 이에 따라 군 관련 정책 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 보장, 정기적인 소통 및 협력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군과 시민사회가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군이 적용해온 ‘전략적 소통’은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언론 대응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국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방 S/C의 개념 및 기본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 대내외 안보 환경 및 정보유통 구조의 대변혁 현상

을 고찰하여 국민과 소통하는 채널의 구축 등 한 차원 높은 국방 S/C의 효율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군은 2018년 국방개혁 2.0을 통해 ‘국민과 함께 하는 군대’를 강조하며 군과 시민사회 간 소통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군 조직의 변화와 열린 병영문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여 민·관·군의 병영문화혁신 위원회가 출범하였고, 군 조직 내 문화의 폐쇄성과 소통의 단절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였다. 병영문화혁신도 최종 지향하는 목표는 의사소통 활성화에 따른 전투준비태세 완비이며, 군 조직 구성원들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조직의 신뢰증진과 조직을 단단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군 조직이 강하기 위해서는 상·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 및 시민사회와의 호응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방 관련 기관은 대국민 홍보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법으로 국민이 안보 관련 정보를 쉽게 알 수 있



〈사진 정재필 본회 회우〉

강한 군대 조직 위해선 시민사회와 호응 중요 국방 홍보원 통해 軍 국민 쌍방향 소통구도 활용

도록 한 접근의 용이성과 국민여론을 적극 수렴해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자료로 활용해 왔다. 이러한 계획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방 홍보원을 통해 기획홍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및 SNS 운영, 여론 주도층의 안보 공감대 형성 기반 등은 모두 군의 정책을 알리고 국민들의 이해를 돕는 것들이었다. 이것은 그동안 홍보를 ‘알리는 기능’만으로 인식해온 홍보마인드에서 탈피, 쌍방향의 소통구도를 적극 활용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발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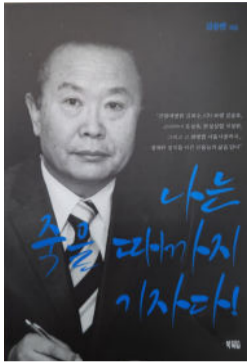
국방 전략적 소통(S/C) 추진에 국민의 신뢰 확보가 중요함이 강조되어야 한다. 국방의 전략적 소통은 과거 경험의 함정과 고정관념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국방 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결국 “국민이 어떻게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며, 행동하느냐”와 직결되어 있으므로 국방 S/C의 초점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는 맞춤형 메시지가 절대 필요하다. 이는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언론환경의 변화와 노이즈(noise)와 가짜뉴스(fake news)에 주목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국방S/C를 추진해야 할 정보유통 구조 및 여론 흐름이 과거와는 달리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 미디어 융합 현상과 인터넷 및 방송 영향력이 확대되었으며 1인 미디어가 수만 개 이상 확산되어 소통 채널은 다원화 되었지만 실제 ‘끼리끼리 소통’에 가까운 집단극화(group po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여론의 쏠림현상과 가짜뉴스 등 노이즈가 난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의 속성을 이해하고 사실 확인(fact checking)의 효과 중심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할 것이다.

‘내부 커뮤니케이션 없이 외부 커뮤니케이션 없다’는 말처럼 정부 부처간 유기적인 소통은 물론 국방 조직 내부의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국회, 여론 주도층, NGO, 젊은 층 등 국방 커뮤니티의 다차원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도록 ‘참여, 재미, 신뢰, 공감’ 요소를 고려한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회우가 낸 새책

“나는 죽을 때까지 기자다” 저자: 김용발 (전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이 책의 제목처럼 기자라면, 아니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현역이기를 바라는 소망이 아닐까. 이 책은 필자의 한 평생 기자로 살아온 생생한 기록이자 노년의 삶을 다시 정의하는 도전이다. 특히 기자생활을 통하여 가까이 교유했던 경제와 정치를 이끈 인물들의 삶이 눈길을 끈다. 팔십을 넘긴 저자는 지금도 ‘메디팜헬스뉴스’ 발행인으로 현장을 누비며 글을 쓰고 있다.

(북적임 간행 212면 값 15,000원)

『文章經國』 저자: 정재호(본회 원로회원, 3선 국회의원, 민족중흥회장)



원로 언론인이자 원로 정치인인 저자는 자타가 인정하는 보수논객으로 망백(望百 1930년생)의 연세에도 왕성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2022년부터 2025년 최근까지 정치와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의 우여곡절이 있을 때마다 신문 잡지 등에 기고한 칼럼 73편을 모아 <文章經國>이란 칼럼집을 펴냈다. 문장마다 우국충정의 진심이 배어 나온다.

(도서출판 우삼 간행, 388페이지, 23,000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읍니다

기자·작가정신 돋보인 ‘고딕체 삶’

최병요 본회 전 사무총장 영전에

“내 죽거든 조사(弔辭)를 써주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해리’가 적임자 같아요.”

튼금없는 소리에 당혹했지만 평소 조크를 잘하는 성품이라 “죽을 사람이 별 걱정 다하셔” 하고는 대수롭지 않게 받아넘겼다.

지난 8월 27일 서정 최병요 전 본회 사무총장의 부음을 접하며 조사 부탁이 떠올랐다. 아호 ‘해리’는 한학에도 조예가 깊은 서정이 지어줬다. 이름이나 직함 대신 아호로 부르며 친교를 다졌다. 서정은 폐암·신장암 등 ‘삼중암’의 고통에 시달리며 힘겨운 투병생활을 했다. 어느 날 의사로부터 ‘4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충격을 추스르며 하나 둘씩 정리하다 ‘조사’에 생각이 꽂혀 내게 전화했다고 한다.

서정은 대한언론인회 편집위원으로 함께 활동하며 안면을 텅다. 언론진흥재단 미디어강사 땀 같은 학교에 배정 받는 등 교유의 폭이 넓어졌다. 동갑내기 신뢰가 쌓이면 서 숙내를 조금씩 드러냈다. 서정은 1946년 전북 부안에서 태어나 전주 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했다. ROTC 중위로 군복무를 마친 뒤 한국경제신문에 입사해 언론계 진출은 나이에 비해 늦은 편이다. 중소기업부장, 지방경제부장,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퇴직 후 ‘더 저널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자소서와 자서전 쓰기 등 실용적 글쓰기 중심으로 강의했다. 서정은 자서전 대필 등 작가로서의 역량을 발휘하며 저술활동을 펼쳤다. ‘어



둠이 깊을수록 등불은 빛난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번역서 ‘미연방수사국 범죄수사 원칙’ 등을 펴내며 글쓰기와 강의에 열성을 쏟았다.

병마와 싸우면서 출간한 장편역사소설 ‘달하 노피곰도다사-천년의 노래 정읍사’(2022·생각나눔)는 최병요 작가의 절창이다. 10년 동안 작가정신으로 사서와 기록을 뒤졌고, 기자정신으로 현장을 답사하며 취재하여 특유의 상상력을 소설에 녹여냈다. 주인공 달래는 뒷동산에 올라 행상나간 지아비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라 맹렬열성으로 재창조했다.

서정의 기자정신과 작가정신이 돋보인 선 굵은 고딕체 삶이 고스란히 투영됐다. 이혼, 자식과의 생이별, 재혼 아내와의 사별 등 아픈 가족사는 신앙의 힘으로 극복하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 저서를 남겼다.

지난 초여름 경북궁 옆 체부동 잔치국수집에서의 식사가 마지막이 될 줄이야. 그날 서정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왔다. 빈대떡 안주에 안마시던 소주를 석 잔 마셨다. “항암제 복용으로 기력과 입맛이 떨어져 이판사판 약을 버렸다”고 했다. 입맛이 돌아오고 활기를 되찾았다고 좋아했는데, 부음을 받기 열흘 전인 8월 17일 “정말 멋진 ‘산문집을 냈구려’ 자랑스럽소이다. 그동안 교유가 좀 더 깊지 못했음이 후회됩니다.” 서정에게 받은 마지막 문자메시지다. “서정, 고통 없는 하늘나라서 편히 쉬시게.”

<이규섭 본회 전 사무총장·편집위원장>

온정으로 화합했던 ‘언론계 신사’

그리운 김영일 전 연합뉴스 사장

거동이 불편하시고 기력이 많이 약해지셨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서 회복되시길 빌며 걱정만 해오다 갑자기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이제 영영 다시 뵈 수 없다니 허망하고 안타깝습니다. 생전에 자주 찾아뵈지 못해 송구합니다.

사장님은 저에게는 엄한 스승같은 정치부장으로 계십니다. 80년대 중반 연부역강(年富力強)하실 때 야가림도 제대로 못하던 저를 정치부로 데려다 쓰셨는데 4년간 밑에서 일하며 한 번 크게 야단맞은 적이 있습니다.

약명 높은 5공 중반, 언론은 가혹한 통제 탓에 좋은 기사를 발굴하기 보다는, 권력의 내밀한 움직임을 알아내 위에 보고를 잘하는 것이 유능하다고 평가받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젊은 야당의원과 어울려 다니며 얻은 중요 정보를 위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저는 부장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놈. 이런 놈이 있나!” 지금도 저의 귓가에 쟁쟁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라. 알았지!”

장례를 모시는 자리에서 선후배들과 지난날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일을 털어 놓자 좌중의 그 누구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누가 사장님이 그러시리라 믿겠습니까. ‘젠텔’ 그 자체인 사장님께서 ‘네 이놈’이라니요. ‘위이불맹(威而不猛)’. 위엄 있으나 결코 사납지 않으신 모습. 사장님은 한없이 따뜻하셨습니다.



그 따뜻함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80년 5공이 권력기반 ‘정비’를 목적으로 언론인을 강제해직시키고 언론사 통폐합을 강행했습니다.

모두 연합뉴스에 합류했으나 사내의 끝없는 갈등과 잘못된 경쟁을 견뎌내지 못하고 신생 언론사로 옮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저도 그중 한명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서는 “어디가든 잘해라. 하지만 힘들면 언제든 다시 찾아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퇴사한 지 3년후 제가 연합뉴스로 다시 돌아왔을 때 사장님께서서는 다시 힘을 내 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보살핌이 어찌 저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사장님은 강제해직돼 쫓겨난 구(舊)합동통신 동료들을 잊지 않고 만나 함께 아파하고 보살피셨습니다.

1965년부터 2000년대 초까지 힘든 시기를 언론인 외길을 걸으시며 주변과 화합하고 두루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했던 삶. 연합뉴스 사장에 이어 2000년 국민일보 사장으로 청빙되었고 이어 대한올림픽위원회(KOC) 미디어위원장, 한국ABC협회 회장 등을 역임하시며 노후에도 왕성하게 활동하신 사장님. 일본일보를 다투는 속보가 생명인 통신사 데스크의 격무에서도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으셨습니다. 늘 몸과 마음을 다스려 복된 삶을 사신 사장님.

더욱 그립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서형래(전 연합뉴스 정치부기자 청와대정무비서관)

연회비 감사합니다

연회비 납부 : <2025.8.25 ~ 2025.9.24>
<괄호 안은 연도, 단위 ; 원>

■ 연회비: 30,000원 ■ 평생회비: 300,000원

계좌 번호 :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신입회원

김수중(입회비, 2025) 330,000

만보회 서울숲 걷기, 전원 10,000보 완주



대한언론인회 만보회(회장 최귀조)는 지난 9월16일 화요일에 제15차 걷기 행사로 테마공원 서울숲을 산책했다.

서울숲은 도심 속 휴식처로 길고 긴 폭염을 넘어 가을 냄새가 짙어지고 있었다. 이날 선선한 바람 속에서도 본회 이규진 총괄부회장 등 회원 15명이 참석, 숲속 길을 1시간 30분 산책해 참석자 전원이 10,000보를 기록하는 노익장을 과시했다.

이어 서울숲 근처 맛집에서 아구찜과 막걸리 등을 곁들이며 뜻다한 이야기꽃을 피웠다.

참석자 : 김기원, 김윤찬, 김조영, 박교원, 박종서, 안종우, 안홍렬, 이규진, 이우진, 이충남, 임상학, 장 옥, 조희근, 최귀조, 황우연

<최영배 총무>

산악회 서오릉 나무숲길 산책

대한언론인회 산악회(회장 황우연)는 23일, 9월 행사로 소나무 숲길이 울창한 고양시 '서오릉'을 둘러보았다.

날씨는 초가을 날씨로 선선해 답사에는 최적이었다.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명릉'(사진, 숙종의 제1계비 인현왕후·제2계비 인원왕후)을 시작으로, 숙종의 사랑받는 후궁에서 왕비에 까지 올랐으나 사약으로 생을 마감한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의 '대빈묘'까지... 그래서 숙종을 저승에서도 후궁까지 가까운 곳에 두어 "가장 행복한 왕"이라던가. 13명 참가.

오찬은 '왕릉일가'에서.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송경섭 회우 서울시 서초구 잠원로 213-10 한강아파트 5동 905호

이태교 회우 서울 강남구 도곡로 19길 13 노블카운티 아파트 4층 403호

남주환 회우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로 53 풍림아이원 2차 111동 103호

회우 동정

장석영 회장 '할미꽃 당신' 출판기념회 성황



아산 장석영(본회 회장) 작가의 '할미꽃 당신' 출판기념회가 지난 9월1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열렸다. 시인이자 수필가인 작가의 '할미꽃 당신'은 아내의 타계 1년 즈음에 눈물로 써

내려간 진한 사연들을 수필집으로 엮어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달, '부부란 무엇인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갖게 했다.

이날 작가는 이 수필집을 "먼저 간 아내에게 바친다."면서 "이 글을 통해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과 마주하게 됐다"고 했다.

유자호 한국시인협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에는 방 열 전 농구협회장, 이민섭 전 문체부장관, 변정일 전 국회의원 등 다수의 인사가 참석, 축사를 했고 홍성례 숙명여대 교수가 작가의 장시 '할미꽃 당신'을 낭송하자 숙연해진 관객들이 눈시울을 붉혔다.

백교문학상 시상식 개최



권혁승 본회 원로상임위원(백교효문화선양회 이사장)은 9월25일 오후 강릉시 명주예술마당에서 제 16회 백교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화문 포럼서 감사패



고 남시욱 회원이 지난 9월11일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개최된 광화문문화포럼 창립 25주년 기념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는 부인 김은산 홍익대 명예교수가 대신 받았다.

언론가 소식

언론진흥기금사업비 169억 원 책정

정부가 2026년 언론진흥기금사업비 예산을 2025년도 209억보다 약 40억 원 삭감한 169억원을 책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와 동일한 209억원을

예산으로 마련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대폭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촌상 시상식

제39회 인촌상 시상식이 지난 9월 30일 오후5시 호텔 웨스틴조선서울 1층 그랜드볼룸에서 거행됐다. 올해 인촌상은 교육 부문에 해밀학교, 언론·문화 부문 신달자 시인, 인문·사회 부문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과학·기술 부문 김범준 포항공대 물리학과 교수에게 각각 수여됐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김영일 회우 (전 연합뉴스 사장) 9월 3일 별세 향년 86세.



김성림 회우 (전 경향신문 편집국 사회부장) 9월9일 별세 향년 86세.



김춘빈 회우 (전 매일경제 정치부장·대한언론인회 사무국장) 9월 22일 별세 향년 93세.



최택만 회우 (전 서울신문 경제부장 대우·논설위원) 9월 25일 별세 향년 86세.

월간 **대한언론**

Korea Journal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석영
- 주 필 이도선
- 총괄부회장·사무총장 이규진
- 편집위원장 최명우
- 편집국장 송창기
- 발행처 (우) 04520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센터 1405호
등록번호 서울 라 12013
- Email : kjc1405@kjclub.or.kr
- 홈페이지 : www.kjclub.or.kr
- ☎ 02)732-4797/4798
02)2001-7621
- Fax 02)730-1270

튼튼하게
탄탄하게
든든하게

튼튼 탄탄 든든 하게
K스포츠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K스포츠 컨트롤 타워
올림픽회관

국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K-스포츠 크리에이터

스포츠와 문화, 교육과 산업을 융합한 창의적인 K-스포츠로
KSP0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스포츠 사업을
탄탄하게



스포츠 재정을
든든하게

•스포츠 복지 •스포츠 산업 •올림픽 유산 •체육인재 육성/지원 •기금조성사업 •KSP0스포츠단

KSP0 국민체육진흥공단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언론사협회 명사초청 특강

인류 회복의 때



2025. 10. 17(금) 오후 2~5시
서울

초청 연사



이상면
천지일보 발행인

행사명 광복 80주년 기념 한국언론사협회 명사초청 특강

주제 인류 회복의 때

주최 (사)한국언론사협회

주관 천지일보

연사 천지일보 이상면 발행인

규모 300석

사전등록 8월 12일(화)~10월 15일(수)

등록방법 천지일보 홈페이지

문자 010-4617-7533(이름, 소속, 직책, 연락처, 차량유무)

※사전등록자 전원에게 천지시론IV 증정



등록 안내 QR코드

행운권 추첨 경품

1명



SK 매직 공기청정기
1명(1대)

30명



포도블루
가족사진촬영권 30명(각 1매)

20명



영화티켓
20명(각 2매)

10명



명품 한방 진골드 샴푸
10명

20명



스포츠증파지
(덕분에 구재영 가수 후원)
20명(각 1매)

30명



연극티켓 30명(각 2매)

